

# 신가족주의사회, 전업주부를 말한다

| 일 시 | 2011년 11월 15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 [www.womenlink.or.kr](http://www.womenlink.or.kr) 전화 | 02.737.5763 이메일 | [minwoo@womenlink.or.kr](mailto:minwoo@womenlink.or.kr)



## ✓ 순서

사회 -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전업주부’ 범주의 사회적 의미와 여성주의 가족 담론의 방향 1쪽

정영애(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 발제

- 신가족주의에 저항하는 전업주부의 가능성을 찾아서 27쪽  
- 미취학 자녀를 둔 중간계층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김선미(이대 여성학과 통합과정)

- 김효정 69쪽

이대 여성학과 석사

## 토론1)

- 조주은 71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조영임 73쪽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 전체 토론

참가자 전체

1) 토론문은 별도 원고가 없습니다.

- 신가족주의사회, 전업주부를 말한다.

이 자리는 1997년 이후 등장한 신가족주의를 비판하고 전업주부 10인에 대한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응담론을 구성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신가족주의란, 여성의 역할을 아이 낳기와 양육에 한정해 여성에게 가족을 위해 감정치료사, 교육매니저, 가정의 CEO가 될 것을 강요하는 담론으로 저출산담론, 건강가족 담론과 호응해 여성의 역할을 가족을 위해 구성하고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담론의 현재를 성찰하고 ‘전업주부’라는 주체를 통해 차별 문제를 발굴하며 돌봄과잉사회, 신가족주의사회에서 대안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구상이 필요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전업주부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논의합니다.

- 토 론 주 제

- (1) 전업주부의 삶을 통해 본 성차별 문제는 무엇인가?
- (2) 여성주의적 가족담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여성운동의 접근은 어떠해야할까?
- (3) 돌봄과잉사회, 신가족주의사회에서 대안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구상이 가능한가?

## ‘전업주부’ 범주의 사회적 의미와 여성주의 가족 담론의 방향

● 정영애(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지난 시기동안 우리사회의 근대화와 경제성장 과정은 기업우선 문화와 장시간 근로관행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동문화와 관행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하는 남성과 가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 간의 성별분업적 역할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가구구성 단순화와 다양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등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성별분업적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였다. 특히 가족 내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크게 줄어들고 있어, 돌봄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베버리지-케인지안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던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복지제도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 현실적합성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돌봄과 젠더관계를 새로운 중심 축으로 하는 고용과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부족과 미비한 대응은 다시 세계 최저의 저출산, 불안정한 가족관계, 사회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악순환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지속적인 양성평등의식의 확산과 여성 대학진학율이 남성의 수준을 상회하는 등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성이 약화되고, 실업의 위험이 확대된 경제구조 하에서 중산층 이하 가구에서 남성의 소득만으로는 안정적 가족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에서는 저출산 위기 이후 보육시설 확충과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 보육료 지원대상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었고, 2010년도 보육예산은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하여 3조 5천억~4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1990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47.0%이던 것이 2010년 49.4%로 2%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OECD 국가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도 출산, 육아기에 하락하여 여전히 M자형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학력이나 정규직 일자리의 여성들은 두 번째 진입기에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는 기혼여성을 전업주부라고 할 때, 우리사회에는 상당한 규모의 전업주부 집단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이 전업주부가 될 수 있는 가족은 남편의 수입만으로도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소수 계층에 국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이상 전업주부의 역할과 담론은 종종 기혼 여성 일반과 동일시되고, 고용상태에 있는 취업주부조차 이러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도입과 함께 경쟁 중심의 사회적 가치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족중심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이 자녀교육의 성공요인이라는 우스개 이야기는 계층적 차이 위에 철저한 성별분업구조를 바탕으로 가정 내 돌봄역할에 대한 아버지의 비개입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신, 교육매니저 및 가족경영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은 보다 전문화되고 강화된다.

전업주부가 되는 과정은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불가피한 상황의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전업주부 범주가 범주 내부의 다양한 차이들을 포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업주부는 생계부양자의 대응개념이므로, 가족 내 성별분업구조를 유지시키고, 남성 생계부양자(가장) 중심의 가부장적 기업 문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 결과, 가사와 육아 등으로 엄격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성 노동자는 보조적 지위에 머무르거나 노동시장을 떠나게 된다.

아울러 전업주부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나 돌봄의 공공화, 시장화를 제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여성 삶의 남성화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가족 내 역할 공유, 국가와 사회의 돌봄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줄이는 대신, 개별 가족 내의 여성이 일-가족 양립을 조화시키도록 하는 시간제 노동(퍼플잡) 논의나 가족 스스로의 위기 대응역할을 강조하는 건강가족담론 등 보수주의 가족담론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의 방향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지향해 왔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환경의 변화, 남성의 돌봄참여, 일-가족 양립을 위한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많은 정책과 담론의 방향에 있어서도 대체적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돌봄활동만을 수행하는’ 또는 ‘(사회적인)일에 참여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중요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전업주부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족 내 돌봄노동의 가치평가나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주부로의 변화, 모성주의에 대한 논의 등의 차원에서 각각 별개로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업주부 집단의 의미와 현 위치, 이들이 사회구조의 재생산에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본 후, 전업주부의 문제를 포함하는 여성주의 가족 담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전략이 요구되는지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 2. '전업주부' 범주의 사회적 배경과 현황

### 1) 전업주부 범주의 역사적 변화(틸리 & 스콧, 2008; 기틴스, 1997)

우리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의미와 동일시될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업주부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결혼했으나 사회적인 일을 하지 않는 여성, 가족 내 돌봄노동을 하는 기혼 여성, 유희노동력, 피부양자 등 다양한 함의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들이 전업주부 범주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전업주부의 규모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과 연로자나 특수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략적 수치로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말의 전업 주부(主婦)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으로 한정되는 것과는 달리, 영어의 경우는 housewife 외에도 homemaker라는 용어가 있어 전업주부의 성별이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편이다. 또한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이나 지위, 정체성이 개별 기혼 여성의 전 생애주기 동안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전업주부라는 범주와 개념은 20세기 초의 인구변화와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한 특정 사회적 산물이며, 전업주부의 역할과 규모,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전업주부 범주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이 범주가 지니는 사회구조적 의미와 변화가능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이래 전산업경제의 가구생산양식에서 생산의 단위는 작았고, 생산성은 낮았다. 모든 가구 성원은 나이와 성에 따라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였다. 높은 출생률, 높은 사망률, 그리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성이 생산활동에 일차적으로 시간을 투자했음을 의미했다. 기혼여성은 생산자이자 어머니였다. 가구에 기반을 둔 노동은 생산 활동과 가사활동의 결합을 촉진했으며, 기혼여성은 가족경제를 위한 생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시간을 조정했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가족의 목표는 생계를 꾸리기에 충분한 돈을 버는 것이었다.

산업화시기에 생산단위의 규모가 증가했고 생산활동은 가구로부터 작업장



과 공장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여성들의 노동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산업화 초기 섬유산업은 여성과 아동노동에 크게 의존했다.

20세기 첫 10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 인구, 정치의 발전에 따라 기혼여성의 출산과 가사책임은 점점 더 중요해졌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가사노동의 기준도 높아지게 되어 식사수준이 향상되고 장보기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가족과 가정중심문화가 등장하였다. 가족이 깨끗하고 영양이 충실하고 품위 있게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성의 관리기술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영아사망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어머니들은 모유먹이기 캠페인이나 어린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요구받는 등 양육기준이 높아지면서 양육 활동에 보내는 시간도 증가하게 되었다.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이 증가하면서 당시 버밍엄의 한 통계는 “일하는 어머니를 둔 아이보다는 어머니가 집에 있는 아이의 출석률이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 “우리는 어머니와 더 많이 있었고... 아버지는 거의 볼 수 없었다”는 자녀들의 인터뷰와 “내게 가장 행복한 미래는 내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인터뷰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임금소득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기혼여성의 고용감소는 이들을 고용했던 경제부문(의류, 신발, 섬유업)의 쇠퇴, 남성 실질 임금의 전반적 상승, 물가하락 등과 같은 구조적,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이 빚어낸 복합적 결과였다. 기혼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일을 한다면 기혼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가정이나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냐’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을 주는 일을 하느냐 또는 고용주가 선호하고 좋은 보수를 받는 노동자인 남편에게 서비스하며 집안에서 활동할 것인가’였다. 따라서 기혼여성이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정의 건강과 안정, 번영의 표시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이상에 맞게 살 수 있었던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취업은 언제나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있었다. 여성다움과 취업이 양립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삶이란 불안정한 것이므로 여성의 임금소득활동은 여전

히 일종의 보험역할을 하였다. 가족기업, 소규모 농장 등에서 기혼여성의 가내책임은 시장역할과 혼재되어 있었다.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남성적 일자리는 부족하고 여성이 일할 기회가 많았던 곳에서 기혼여성은 어린아이가 있을 때조차도 공장에 나가 일했다. 1899년 프랑스 한 지역에서 1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여성 가운데 31%가 공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가족의 일차적 임금소득자였다.

20세기 초 기혼여성의 전반적 삶의 변화를 요약하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집안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삶의 과정 동안 여성의 시간은 점차 파편화되었다. 미혼의 젊은 여성은 돈 버는 일에 시간을 소요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전일제 임금노동을 그만두었고, 아이들과 가구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전업주부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10년 이후 여성들이 생산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다시 U자 형태를 띠며 반전을 이루게 된다. 영국에서 기혼여성노동자의 비율은 1911년 14.1%이던 것이 1951년에는 43%, 1970년에는 5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 이유로 우선 간호사, 교사, 상업, 서비스 산업 등 여성노동자에 대한 선호가 높은 직종이나 산업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출산율 감소, 결혼율 증가 및 혼인연령 저하로 미혼여성노동력이 감소하여 기혼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과 관련된다. 세 번째는 자녀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시간이 감소한 반면, 기혼여성의 임금은 증가하면서 임금노동에 대한 유인 요소가 커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당시 고용주는 시간제 교대근무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 결과 1951년 요크지방에서는 경제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집에 온종일 간혀 지내는 대신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일한다”는 비율도 21%나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 지속되어, 2010년 OECD 평균 전체 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70%를 상회하고 있다. 30대 전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3.5%로 20대 후반 63.9%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가정 내에서 돌봄역할만을 하는 전업주부범주는 더 이상 출산, 육아기에조차 주류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 2) 우리나라 전업주부 범주의 현황

우리나라 전업주부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면, 지난 십여년 동안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2006년 50.3%로 정점을 이룬 이후 다시 하락하여, 지난 10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수치는 북유럽 국가와는 20% 이상, OECD 평균과는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962년 관련 통계가 처음 조사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 1,077만명(2010)이며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여성 비경제활동의 이유는 육아나 가사가 67.2%로 나타나 이들의 상당수가 전업주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더라도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9%로 OECD 국가 평균 63.5%(2010)와 10% 이상 차이가 나며, 출산과 자녀양육이 집중되는 30-35세에 저점을 이루는 전형적인 M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 이탈 후 재진입을 포기하는 L-Curve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가족전문경영자라는 신가족주의 담론의 주요 주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박혜경, 2008).

가족의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를 조사한 다음의 표를 보더라도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의 역할구조를 보이는 가구 비율이 지난 몇 년동안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고용상황이 나빠진 것과는 연관이 있겠으나, 가구내 성별역할 분업이 재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표 1〉 한국가족의 부부간 가사분담 형태(단위: %, 명)

가사분담 형태	2006	2009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	29.7	40.2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32.2	33.4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0.6	0.8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7.4	5.9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24.2	10.8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0.7	0.6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3.9	2.4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1.3	5.8

출처: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이상의 추이를 통해 볼 때, 기혼여성의 취업은 개인의 학력이나 능력, 취향의 차이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출산 육아기의 주부역할과 남편의 소득에 따른 계층지위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나 공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가족내 돌봄역할,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는 사회적 상황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이경아, 2009).

즉, 한 개인이 전업주부나 주 돌봄역할담당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선호나 취향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환경이나 문화적 조건의 결과인 것이다. 즉, 노동시장 내 임금수준 및 지위, 수당 및 육아휴직제도의 소득대체율 정도, 접근이 용이하고 믿을만한 탈가족화 사회 서비스의 확충여부, 국가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재정투자 정도 등 다양한 가족 관련 정책의 방향성이나 틀에 의해 제약되는 것이다(송다영, 2011).

### 3. 전업주부 역할의 사회적 양면성

#### 1)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와 전업주부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담당해 오던 일에 대한 중요성 또한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서 이룬 성취와 상관없이 자녀교육을 포함하는 가족 관리를 위한 어머니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은 기혼여성의 삶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전문가 주부 담론은 가족생활 경영자로서 가족의 건강관리와 다이어트 등 신체관리에서부터 시간관리, 재테크 등 일련의 경영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가족의 부를 늘리고 자녀를 경쟁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주부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성별분업을 재구조화한다(박혜경, 2008). 특히 자녀의 교육관리자로서 전업주부의 역할은 점차 중요시됨에 따라 역할 수행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교육지원 역할과 점차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부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애가 저한테 원하지는 않지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인데... 만약에 애가 나한테 뭘 요구했을 때 빨리 빨리 문제를 빨리 풀리게 문제도 뽑고 그러거든요,,, 문제 사이트 다 제가 뒤져서 즐겨찾기 해놓고..”

“엄마가 (공부를) 시키는 거죠. 시험 때는 밥도 안 하고 평소에도 안하지만 시험 때는 절대 밥도 안하고 시켜먹고 도우미도 안 오고 약속도 안하고 미장원도 텅 비고 목욕탕도 텅 비고 엄마가 옆에 앉아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도우미가 오면 방해가 되요, 공기가 달라지잖아 근데 애가요 애를 막 가르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애 옆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하고 내가 일어나면 애가 일어나더라고”

“45분 레슨 받으면서 프리웨어로 25분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운전수같아요 차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애들 학교 간 사이에 시장도 보러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데려다 놓고 큰 아니 학교에 데려러 갔다가 또 집에 와서 개 책가방만 놔두고 어떨 때는 시간 좀 아껴보겠다고 간식하고 개 바이올린 들고 학교를 직접 가요 그럼 거기서 직접 태워갖고 막 가는거야...”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임원을 맡으면... 거의 학교에 출퇴근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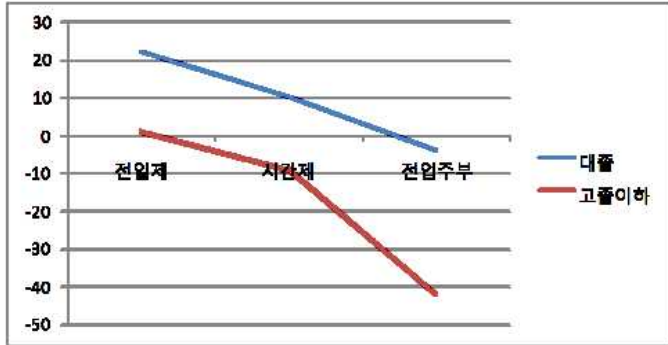
(사례: 박혜경, 2008; 이경아, 2009에서 인용)

이처럼 우리사회의 기혼여성들이 경제중심적인 생산성 논리가 깊이 각인된 도구화된 어머니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은 여성에게 할당된 양육과 보살핌 활동이 자본주의 ‘생산성’ 구조 하에서 가치를 갖지 않는 ‘비생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가정 내 돌봄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업주부들은 자신의 취약한 위치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들을 교환가치가 높은 성인으로 길러내는 집중적인 교육투자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모성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가치구조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생산성’ 기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체계의 재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도구화하는 ‘생산적 모성’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다(이경아, 2009).

가부장적 자본주의 구조 하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위치는 매우 다양하고 때로 상호대립적이다. 특히,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평가가 높아지는 만큼 ‘좋은 어머니’에 대한 이상과 여성의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헌신이 강조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취업여성들의 어려움은 훨씬 더 가중되고 있다(윤자영, 2011; 허라금, 2006).

Shalev가 20-55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 내 성별분업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차이를 측정한 다음 그래프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 의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Shalev, 2008).

〈고용지위와 학력에 따른 성평등정도〉



신자유주의 경영자 주부주체 담론에서 전업주부는 지식과 능력과 권력에서 취업주부를 앞지르는 것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주부상에 비추어 취업주부는 오히려 자녀교육정보를 잘 모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불행한 어머니로 묘사된다(박혜경, 2008).

어머니 모임은 주로 전업주부들의 모임이며, 이구동성으로 취업모들은 이런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다. 시간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모임은 결속이 강한만큼 외부적으로는 배타적이다.

“네트워킹에 끼지 못하면 엄마... 일단 왕따되고, 애도 왕따되고, 좋은 정보를 못 얻으니까 기회가 적어지고... 그게 하나의 파워가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사례: 박혜경, 2008에서 인용)

학부모의 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다음 표의 ‘학부모 학교 활동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의 역할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

〈표 2〉 2010년 서울지역 학부모 학교 활동(%)

	초등학교(584개교)	중학교(375개교)
시험감독	67.8	99.2
학교행사도우미	61.0	59.2
청소	28.6	16.8
환경미화	23.1	15.5
급식배식	17.0	7.2

출처: 중앙일보 2011.9.19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취업주부의 입장에서는 “매번 연차를 낼 수도 없는데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 “저학년생들이 청소를 할 수 없다면 용역을 주면 좋을 것 같다”, “직장 때문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아 초조하다. 차라리 학부모학교 출입금지를 시키면 밭 뽕고 잘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업주부 역시 “표면적으로는 자율봉사지만 학부모회 결정으로 마지못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기 초 전업주부라고 밝히면 계속 요청이 오기 때문에 단순 봉사 ‘봉’이 되고 있다”고 불만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여성들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한 집단의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자녀를 보살필수록 다른 집단 여성과의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된다. 아울러 경쟁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 간의 격차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즉, 취업주부는 전업 주부의 경제적 무능을, 전업 주부는 취업주부의 이기심과 헌신의 결여를 비난하게 될수록 신자유주의적 보수담론과 성별분업구조는 재생산되게 된다.

나아가 경쟁과 성공을 향한 신자유주의와 성별분업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전업) 주부들의 경쟁적이고 전문적인 역할 수행은 사회적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 자원에 접근해야 하는 계층의 여성들에게 불안과 계층 간의 위화감 뿐 아니라, 노동의 가치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전업주부들, 일단 외모부터 곱조, 부동산 정보, 학원정보를 꿰고 있으면서 재테크도 잘하고 애도 잘 키웠다죠... 직장생활 고생스럽기만 하고 남는 것도 없고...”

개인의 성실성이 구조적 악덕을 강화시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여성 간 분리나 상호대립보다는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구조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여성 간의 공통점을 찾아나갈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성공’과 ‘발전’이 전제하고 있는 의미구조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게 한다(이경아, 2009).

## 2) 전업주부의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평가

신자유주의 경쟁사회를 지지하는 전업주부의 도구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교환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노동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우리사회에서 국내총생산은 한 국가에서 사고 팔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표현하며, 경제회계장부는 비시장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와 결혼하면 GDP를 낮추게 되지만,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면 GDP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가족 내 돌봄노동이 상당 정도로 사회화된 하더라도 아무 때나 즉각적으로 구매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누군가가 이 서비스와 연결하고 통제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회권이 노동시장 내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구조 하에서 전업주부를 포함하는 돌봄 담당자의 경우 다양한 불이익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돌봄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영역에서의 노동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의 소득은 돌봄노동에 대한 의무로부터 면제된 사람의 소득보다 훨씬 낮다. 또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재산 분할권 등 재산

권을 행사할 때, 손해보험액을 산정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겪게 된다. 사회복지 혜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내다 결혼을 하면 ‘적용제외자’로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장애를 입거나 가족이 사망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기여를 기준으로 한 연금급여 지급방식도 경제활동의 단절이 있을 경우,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최소기여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수급대상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돌봄의 필요는 일부 ‘약자’에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한 개인의 성공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 외에 그동안의 돌봄과 배려에 의존하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돌봄노동은 돌봄을 제공받는 당사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적절한 돌봄노동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가치평가와 사회적 지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 내 돌봄노동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가치재평가 작업은 가족 내 성별역할 분업이나 여성의 돌봄노동 역할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즉, 가족 내 돌봄노동이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과 여성(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오히려 가족 내 특정 성에 의해 수행되는 가족 내 돌봄노동은 공적 돌봄의 확대를 저해하고,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4. 여성주의적 가족담론의 방향과 전략

복지국가가 돌봄을 조직화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해당 사회의 가족 구조나 형태,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특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돌봄활동의 수행을 위해 국가와 시장,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남성과 여성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한 개인의 입장에서 돌봄역할과 임금노동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구조를 만들어갈 것인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기본적 합의를 이루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우리 사회 전업주부 역할의 위상과 평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여성주의 가족 담론의 방향과 전략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1) 부양자 모델에서 개인모델로의 변화

남편은 소득자이고, 아내는 피부양자로 엄격한 성별분업에 기반하는 ‘부양자 모델’의 경우 취업 및 임금정책은 남성 소득자를 대상으로 마련되며, 복지 기여 및 조세 단위는 가구 또는 가족이다. 수급권의 근거도 소득자인 부양자이다. 전업주부는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개인 모델’은 가족 내 역할을 공유하며, 복지수급권의 근거나 기여단위, 수급권과 조세 단위도 개인이다. 취업 및 임금정책은 양성에게 동일하며, 세금에서 가족에 대한 배려는 줄어들고, 유족급여도 폐지하거나 최소화된다. 젠더평등한 성별 관계로의 변화에 따라 ‘부양자 모델’에서 ‘개인모델’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Sainsbury, 1996).

우리사회는 흔히 ‘약한’ 생계부양자모델로 국가로 분류되어 전형적인 부양자모델의 사회는 아니다. 오히려 이념적으로는 이인생계부양자 모델이나 성인노동자 모델로 변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 상황에서는 여전히 복지제도나 소득공제 등 상당부분 부양자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세제는 원칙적으로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인소득자가구라면 부부 각자에게 별개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업주부나 연소득이 100만원미만인 배우자의 경우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되어 있어,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는 아내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공제도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귀속되게 되어있어 대부분의 가구에서 일하는 여성은 조세혜택에서 이중적으로 배제된다. 조세에 기여는 하지만, 사회적 혜택은 남성생계부양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시장에서 일하지 않는 아내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아내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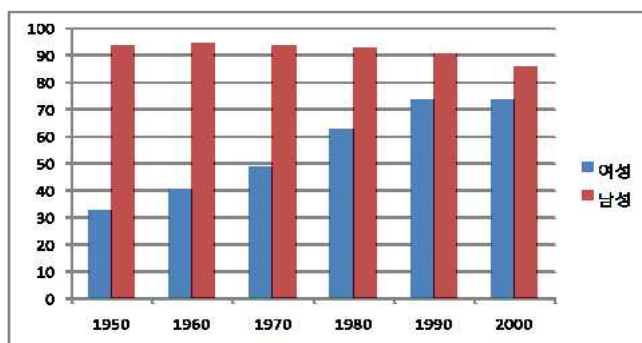
정에서 밖으로 나가 일하려고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제약요인이 된다. 만일, 시장에서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머무르는 전업주부가 사회적으로 특별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러한 우대조치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신체 건강한 성인인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세금공제는 점차 축소하고, 그 대신 아동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공제나 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폴브레, 2007; 오사와, 2009).

세제 상의 우대조치를 줄이거나 사회복지수급단위를 개인화함으로써 피부양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은 기혼여성에 대한 돌봄의무가 여전히 강조되는 반면 적절한 여성고용의 조건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 상황에서 상당한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우선적인 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은 더욱 공고해지고 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2) 보편적 노동권의 확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성인은 노동자가 ‘될 수 있어야한다’. 현대 사회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필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일상의 여러 부문에서 선택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즉,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생존의 의미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선진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남성과 여성(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Folbre, 2008: 382)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율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저출산 정책은 여성경제활동참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는 가급적 높은 수준의 가족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풀타임직장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어 왔던 독일에서도 그동안 남성이 생계부양자이며,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중심으로 현금 수당 중심의 지원을 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2년 이후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공공보육서비스 확대, 육아휴직제도 도입, 아버지 휴가사용 의무화 등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2011)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고, 출산율이 1.2로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근로자의 활용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상이 되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국가의 국민총소득 성장은

여성의 고용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력 감소라는 상황에서 여성노동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돌봄을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만일, 여성이 돌봄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 단위이든, 사회적으로든 재원의 총량은 줄어들게 된다(송다영, 2011). 따라서 일과 돌봄의 양립가능성과 남녀 모두의 노동참여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sup>2)</sup>.

그러나 가족 내에 머물러있는 전업주부들이 보편적 노동권 또는 상품화의 권리를 통해 생산적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긴 우리사회의 노동시간 제도와 문화가 변경되어야 한다. OECD의 ‘국가성장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권고’(2010)에 의하면, 한국의 GDP는 장시간근로를 통한 노동투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2009년의 우리나라 1인당 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의 상위 절반보다 거의 40%가 길며, OECD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 단축할 경우 잠재적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유연화 확대에 의한 고용불안정 상태도 극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혼여성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고용단절을 피할 수 있는 탈가족화 정책들도 매우 중요하다.

### 3) 일-가족 양립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

그동안 일가족 양립 지원, 저출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상당한 수준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까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게 돌봄의 이라적 책임이 주어져 있는 가족주의(윤홍식, 2011)나 보편화의 수준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설계가 일하는(일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최근 LG 경제연구소에서 20대 응답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라이프스타일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3%가 ‘남자도 전업주부를 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42%는 ‘맞벌이는 필수다’라고 답하여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중앙일보, ).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돌봄노동 사회화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는가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급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대신, 돌봄서비스와 같은 현물급여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여성고용을 증가시키고 성별임금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우선 지원보다는 소득기준에 의한 선별주의적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여성의 근로로 인한 소득증가가 보육료 지원혜택 대상에서 배제되는 조건이 되면서, 경제활동참가의 유인효과를 오히려 줄이게 된다.

“만약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할 경우 보육료 지원이 안 된다면... 글썄요.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소득이 너무 많아지면 못 받잖아...”(김경희, 윤자영, 2010)

2010년부터 맞벌이 소득수준 인정기준이 변화되어, 맞벌이 가족의 경우 전체 가구소득의 25%가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기준에 기반을 둔 선별주의 속에서는 총소득액이 일정 수준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수요자 배제문제는 지속된다(송다영, 2011).

아울러 보상의 수준이나 급여대상가구의 계층에 따라 정책 추진결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소득층 여성보다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저소득층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소득보전제도가 확대된다면 이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역시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장지연, 2010).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자녀 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용우선순위나 입소자격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시설이용 1순위는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받는 아동이고, 2순위가 취업모의 아동이다. 보육시설에 빈자리가 없을 때 취업모의 아동이 입소를 희망하면 기존 일반아동을 퇴소시키고 그 자리에 입소시키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3세 이하 아동은 취업모 자녀만 입소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취업모나 기타 가정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우선 순위가 되고,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한 아동은 후순위가 된다.

또한 아동보육시간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돌봄을 제공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럽의 OECD 주요 국가를 보면 모든 3-5세 유아들에게는 부모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무상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 더 긴 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들에게만 추가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백선희, 2010).

EITC제도 역시 남성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할 때 한계세율을 높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제도는 연소득 800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증가하고 1,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120만원이 지급되어 저소득가구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연소득 1,200만원부터 1,700만원 구간에서는 장려금이 감소하여 저소득가구에서 배우자인 여성이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sup>3)</sup>

현재 EITC제도는 점감구간이 연소득 1,200-1,700만원 가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 고용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가구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미국과 같이 EITC제도가 최저임금 연소득의 3배 수준의 가구소득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확대될 경우 이에 영향 받는 여성의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sup>4)</sup>

현행 건강보험료 역시 가구 내의 2차 소득자이기 쉬운 여성에게 순수한 조세로 기능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남성가구주가 취업하고 있을 때 여성이 추가로 취업할 경우 여성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순수한 비용으로 간주되며, 근로유인을 약화시키게 되므로, 2차 소득자 유무에 따른 가족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남성 가구주가 1,200만원을 벌고 있을 때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이어서 가구소득은 1,320만원 임. 만약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500만원을 번다고 하면 근로장려금이 감소하여 실제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분은 380만원에 그치게 됨.

4) 미국의 경우 홑벌이에 비해 맞벌이의 근로장려금 지급구간이 20% 가량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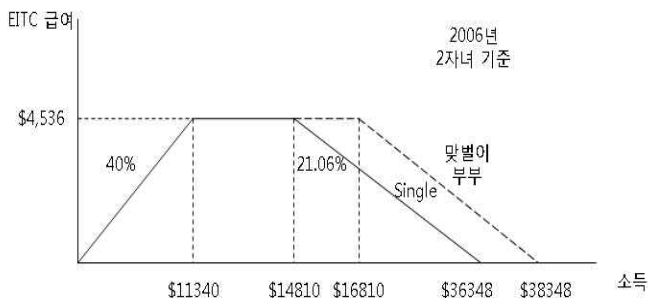
#### 4) 가족화와 양성평등한 돌봄정책

성인노동자 모델 사회 또는 보편적 노동권의 지향과 함께 남녀노동자 모두 돌봄의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돌봄의 가족화 정책에서 남성의 참여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게 되면 가족내 젠더불평등은 물론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의 돌봄, 육아 참여가 출산과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아마구치는 두 번째 자녀 출산의 가장 큰 장애가 첫째 자녀 육아기의 남편의 비협조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아마구치, 2010).

우리나라의 2009년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은 1.4%에 불과하며(고용노동부, 2010), 이들조차도 실제로 육아를 담당하기 위해 휴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체로 남성의 가족화는 여성의 (재)가족화에 비해 탈상품화 수준에 민감하게 영향받는다. 따라서 남성의 돌봄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구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도되지 않는 부모휴가’나 ‘성평등보너스 제도’의 시행 등 남성에 대한 탈상품화 수준을 충분히 높일 필요가 있다. 윤희식은 육아휴직 최저급여를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2010년 기준 858,747원)에 맞추고, 중간은 소득비례급여를 하고, 최대급여를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2010년 1,946,000원)에 맞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윤희식, 2010).

더 나아가 돌봄노동이 가족 내에서 특정 성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의료와 연금 혜택을 받을 권리를 시장노동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는 조건부로 하거나 소득에 누진세율을 정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폴브레, 2007).

<미국의 EITC 급여체계>



장시간 노동 고소득자에게 강하게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노동시간을 감소하게 할 수도 있고, 부부의 시장소득이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남녀가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에 균등하게 시간을 쓰게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윤자영, 2011).

## 5. 맺는말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란 돌봄이 필요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좋은 돌봄이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지닌 사회이다. 또한 개인이나 가족이 택한 삶의 방식이 서로의 ‘좋은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다시 순환되는 사회이다. 또한 돌봄이 여성만의 한정된 관심이나 최소한의 사회복지정책 과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주요한 영역으로 위치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경향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확산이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젠더관계를 근거로 하는 돌봄의 사회적 체계를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과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결과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경쟁사회를 과정중심적 사회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쟁’ 패러다임을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세계적인 차원의 경쟁 체제 속에서 사회계층적 지위 유지와 상승을 위한 전업주부의 역할 비중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며, 여성 간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경쟁적인 사회 틀 안에서 가족에 대한 적극적 돌봄이란 오히려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성별분업 체계를 유지,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극한 돌봄의 대상인 자녀들 역시 이 과정의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sup>5)</sup> 성과 계층간 불평등

---

5)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아이 교육에 ‘투자’해 나중에 아이가 거둬 ‘성공’을 공동 소유하려 한다. 피 말리는 학습 경쟁에 내몰려 부모의 공포와 소유욕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 하는 아이는, 살인적 체제의 ‘나사’로 전락하고만 그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쉽겠는가?”(박노자, 한겨레 2011.6.9)

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부정적 결과는 점점 더 증폭되게 될 것이다.

선진사회의 경험은 남성생계부양자-전업주부로 이루어진 성별 분업관계와 신자유주의 경쟁구조, 보수주의적 가족담론 간의 결합이 현재 존재하는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키며, 선진사회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관계의 변화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도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전업주부의 범주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Folbre, N., "Conceptualizing Care", *Frontiers in the Economics of Gender*, edited by Francesca Bettio and Alina Verashchagina, Routledge, 2008.
- Gornick, J. & M. K. Meyers, "Creating Gender-Egalitarian Societies: An Agenda for Reform, Politics & Society", vol.36, no.3, 2008.
- Gornick, J.C. & Meyers, M.K.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N.Y., The Russell Sage Foundations, 2003.
- Leitner, S.,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Belgium in Comparative Perspective", ESPAnet conference, "Changing European Societies - the Role of Social Policy" 2003.11.13~15.
- OECD,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2011.
- Shalev, M., "Class Divisions among Women", *Politics & Society*, vol.36, no.3 Sep. 2008.
- Tronto, J. C. "The Value of Care" , *Can Working Families Ever Win?* ed. J. Cohen & J. Rogers, Boston Review, 2002.
- 기틴스, 안호용 외 역, 『가족은 없다: 가족이데올로기의 해부』, 일신사, 1997.
- 야마구치 가즈오, 이충남 역,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틸리 & 스콧, 김영 외 옮김, 『여성, 노동, 가족』, 후마니타스, 2008.
- 김경희, 윤자영, "보육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보육예산에 대한 젠더분석을 중심으로(2005·2009년)", *노동리뷰*, 2010.
- 마경희,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돌봄: 여성주의 복지정치를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6.18.
- 박혜경, "신자유주의적 주부주체의 담론적 구성과 한국 중산층 가족의 성격", *박혜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 백선희, "돌봄책임의 사회화: 일하는 여성의 육아를 생각한다", *복지동향*, 2010.3.
- 송다영, "가족정책에서의 자유선택 쟁점", 『한일사회의 빈곤, 불평등, 사회정책: 젠더관점에서 비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주최, 국제공동심포지움, 2010.3.6.
- 송다영, "돌봄에 관한 국가별 대응과 정책적 함의", *한국가족학회추계학술대회*,

- 2011.10.29.
- 윤자영, "더 나은 돌봄경제를 위한 복지국가 구상",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6.18.
- 윤홍식, "한국가족정책의 쟁점과 과제: 돌봄,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토론회, 2010.12.3.
- 윤홍식, "가족(책임)주의와 돌봄정책의 이론적 검토", 한국가족학회추계학술대회, 2011.10.29.
- 이경아, "모성과 자본주의 생산성의 경합에 관한 연구: 한국 중산층 어머니의 자녀 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 이숙진, "복지국가, 돌봄과 여성 내 차이의 문제", 한국가족학회추계학술대회, 2011.10.29.
- 장지연,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6.18.
- 장지연,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일하는 여성, 복지국가를 말한다. 생생여성노동행동주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2011.
- 정영애, "양성평등한 돌봄사회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사회과학협의회, 2011.7.1.
- 허라금,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한국여성학』, 22권1호, 2006.



## 신가족주의에 저항하는 전업주부의 가능성을 찾아서 - 미취학 자녀를 둔 중간계층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 김선미(이대 여성학 통합과정)

### 1. 들어가며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산업화와 핵가족화는 부부중심의 성별분업에 기반한 가정을 험난한 사회에서 안락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이상화시켰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하였고, 그것은 어머니 역할의 비대화화과 맞물려 가고 있다(김미숙, 1993). 이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가족 중심성이 더욱 강화되었고, 그 가족 중심성 안에서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시장노동의 주체로서 주부로서 고군분투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양성 평등을 주창하며 다양한 정책 및 제언들이 오고가면서, 그 이면에서는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으로 양성 불평등이 고착화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IMF 시점에서 잘 드러나는데, 경제 위기로 인한 가정의 위기가 도래하자 전업주부들도 노동시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독려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을 내세웠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위기의 가정’ ‘가족이 희망이다’ ‘남편(가장) 기 살리기’등을 중심으로 한 신가족주의 담론과 함께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을 지켜야한다고 인식시키는 가부장적 성별화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맞물려 가족 이기주의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전업주부로 돌아간 여성들이 자녀교육매니저와 가정

경영 및 재테크전문가라는 새로운 모델로서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중산층 여성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담론에서의 결혼한 여성의 성공적인 모델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뉘어 설명되곤 했다. 하나는 취업주부로서 시장노동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부이며, 또 하나는 남편에 대한 내조와 자녀 교육 전문가로서 자녀를 일류 대학에 입학시키는 주부만이 성공적인 주부모델로서 이야기된 것이다. 특히 교육을 주관하는 자녀 중심의 어머니 노릇은 우리사회의 교육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돌봄주체였던 어머니에게 더욱 전문적인 형태를 부가 시키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안에서 자녀의 교육은 그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이는 계층을 막론하고 어머니 노릇의 중요 지점으로 부상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기이한 어머니 노릇은 우리사회의 모든 어머니들로부터 공통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이는 중산층 전업주부들로부터 확산되어 사회 전반에 이 모델을 쫓으려 하는 어머니들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중산층 이외의 전업주부들도 이 모델로 설명이 가능할까하면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중산층 전업주부가 이 사회의 대표 주부모델이 될 수 없음을 지적 하면서, 그 외의 계층을 주목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함으로서 사회전체가 획일화된 주부모델을 지향하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같은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제까지 바라보았던 ‘주부’ 라는 것을 다른 위치에서 조명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존의 전업주부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전업주부 연구는 크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연구로 나뉘어져있다. 그 중 현재까지는 주부 모델로서 사회적 담론을 이끌고 있는 중산층 전업주부의 연구(박혜경;2008, 박소진;2007, 이경아;2009, 조형;1997)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업주부는 아니지만 저소득층 기혼여성에 관한 연구로 김효정(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소진(2007)은 자신을 아이의 교육적 성공을 위해 전문적으로 기획 하고 관리하는 ‘교육매니저’로서의 어머니상을 고찰하고 있고, 이경아(2009)



도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지원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한국 어머니들의 모성실천을 연구하였다. 박혜경(2008)은 논의를 더욱 진전하여 중산층 가족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하여, 전업주부가 신자유주의 시장중심의 질서를 따르도록 동원되어 온 것을 지적하며, 페미니즘은 신자유주의 주부담론과 구분되는 아내와 가사노동에 관한 새로운 담론 및 지식의 개발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중산층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담론과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중산층에 포함되지 않은 주부들의 논의를 중산층 주부의 논의만큼 집중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들 연구는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연구대상이 어느 특정 계층의 연구에 치우쳐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산층 전업주부의 연구인데 반해, 김효정(2009)의 연구는 그 계층을 달리한다. 김효정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으로 인해 남성은 생계부양의 의무를,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양육을 중심으로 한 돌봄의 의무를 다하던 체계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남성 배우자가 생계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전업주부였던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의무까지를 지고 있는 저소득층여성들의 노동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이는 그동안 중산층에 치중되어있던 기혼여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계층연구로서 폭넓은 기혼여성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역시 이 또한 전업주부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한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전업주부, 혹은 기혼여성에 관한 연구는 계층 면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연구로 양분되어 있으며, 어쩌면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 그 사이의 계층에 있는 전업주부들의 경험을 읽은 연구들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인 계층이란 어떤 부류를 의미하는가? 본고의 연구대상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 의미하는 계층 간의 특징을 간단히 확인해 두고자 한다. 이재경(2003)은 가족 연구에 있어서의 계층구분을, 크게 상류계층, 중간계층, 노동자 계층, 저소득 계층으로 나누고, 그 하위 범주로서 상류계층과 노동자 계층 ‘사이(중간계층)’를 더욱 구체화 했다. 이는 그 층의 스펙트럼이 넓은 관계로 가족생활의 이질적인 성향에 따라 화이

트칼라계층(이하 ‘중산층’이라 한다), 중간계층, 구중간계층<sup>6)</sup> 세 부류로 나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자들은 이 스펙트럼 안의 중간계층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구성하며 가족 가치관의 측면에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부부사이의 전통적인 권위관계와 성별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며, 아내는 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남편은 가사노동에서, 아내는 사회적 노동에서 면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산층이라고도 할 수 없고, 노동자층, 저소득층이라고도 할 수 없는 중간계층의 전업주부들의 경험을 고찰함으로써, 언제든지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의 변화에 따라 중산층으로도, 저소득층으로도 계층이동이 가능한 전업주부들의 갈등과 그 해결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모두 시장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으나,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자의 고비에서 전업주부로 입장을 전환한 이유를 살펴보고 이 사회의 전업주부를 위치를 재조명하고,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어떻게 협상해서 개척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전업주부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주로 심층면접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간계층을 설명하기 위해 그 비교군으로서 중산층의 전업주부모형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에 이루어진 문헌 연구를 참고하기도 했다. 계층별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경험연구는 문

6) 이재경(2008)은 화이트칼라 계층은 상류계층과는 달리 세대 간에 자본의 상속은 불가능하지만 높은 교육배경을 기반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교육, 혼인, 주택마련 등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계층의 부부들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데, 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질 높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계층의 사회이동에 대한 강한 열망은 지나친 교육열과 과도한 혼수마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구중간계층은 자영 소상공인의 경우,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자영업을 운영하며, 모든 가족원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직접 노동을 하면서 가족생활과 노동력 재생산을 수행하게 된다. 부부 두 사람의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는 철저한 긴축 생활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무급노동과 가사노동은 필수적이다. 이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는 보이지만 화이트칼라층과는 달리 교육, 혼인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그들의 계층적 상향이동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현연구를 바탕으로 하였고, 심층면접법을 이용하여 중간계층의 전업주부들에 대한 주체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이 여성의 경험과 의식을 드러내어 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의 주 대상은 중산층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닌 중간계층의 미취학 아동을 둔 전업주부들이다. 이 계층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사회변화와 가정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류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미취학 자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교육적인 면에서 여유로운 위치에 있다. 이들은 미취학 자녀들이 취학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점과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전업주부라는 자리에서 이탈이 가능한 부류이기 때문에 이들 전업주부들의 정체성과 심리를 읽어내는 것은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방향, 전업주부라는 것 자체의 인식을 짚어 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부분 가족관련 커뮤니티, 종교 활동, 그리고 여성단체 등의 관계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계망이 이들의 교육, 육아, 전업주부의 자의식, 사회참여 등의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깊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경험적 자료들 통해 중간계층 전업주부들이 지니고 있는 전업주부로서의 갈등과, 전업주부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기대를 읽어내고, 그들이 이 과정에서 갈등과 기대의 경합 속에서 어떤 기제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면접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하였다. 첫째 면접자들의 주부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왜 전업주부를 선택하였는지, 주부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부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면접을 하였다. 둘째는, 면접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일’이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자신이 생각하는 가사노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계의 경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가사노동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면접하였다. 셋째로 이들이 전업주부로 머무는데 가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가족 간의 유대관계와, 이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가족과 자신의 삶의 양립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신가족주의가 추구하는 전업주부의 역할과 이에 상응하는 정책의 실행여부를 분석해보고자 이들이 생각하는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적 보상 문제를 물음에 넣었다.

자료는 8월 8일부터 9월 28일에 걸쳐서, 연구자와 민우회 활동가들이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10명의 여성을 면접하였는데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 <표2>와 같다. 면접 대상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1명, 30대가 4명, 40대가 4명, 50대가 1명이다. 이들은 중산층이라고도 저소득층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중간에 위치한 계층으로, 언제 중산층으로 상승할지 또는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지 알 수 없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모두 전문대졸 이상으로 사례 4를 제외하고 전업주부가 되기 전 취업주부의 경험이 있으며, 사례4의 경우에도 임신을 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범주에서는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이 부류에 포함시켰다. 연령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면접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들 모두 취업주부에서 전업주부로 입장이 달라졌고, 보조사례를 제외하고는 미취학 아동의 자녀를 두어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전업주부와 시장노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경험이 있기에 이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본고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이 중간 계층의 전업주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신가족주의 사회에서의 전업주의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자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연령	학력	배우자 소득	배우자 직업	일 경험	혼인 기간	자녀수 (연령)	주요 관계망	기타
1	28세	대졸	560만원	증권 회사 직원	유치원 교사	5년	미취학 2명 (5세, 2세)	교회	임신 중
2	31세	전문 대졸	250만원	공무원	건설회사직원	5년	미취학 2명 (6세, 3세)	교회	
3	32세	대졸	180만원	회사원	시민단체간사	6년	미취학 2명 (6세, 3세)	여성 단체	
4	36세	대졸	580만원	회사원 (금융)	구직	8년	미취학 2명 (7세, 5세)	여성 단체	
5	43세	대졸	750만원	회사원	회사원	8년	미취학 1명 (6세)	여성 단체	
6	43세	대졸	350만원	회사원	논술 강사	10년	취학1명, 미취학 2명 (11세, 5세, 2세)	교회	
7	40세	대졸	420만원	회사원 (IT)	다큐멘터리조 감독	10년	미취학 2명 (7세, 5세)	여성 단체	
8	38세	대졸	300만원	회사원	사회복지사	11년	취학 1명, 미취학 2명 (8세, 2세, 2세)	자녀 또래 엄마	미취학 2명은 쌍둥이

〈표 2〉 보조사례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연령	학력	배우자 소득	배우자 직업	일 경험	혼인 기간	자녀수 (연령)	주요 관계망	기 타
9	40세	대졸	400만원	중소기업 관리직	회사원	16년	취학 3명 (15세, 11세, 9세)	자녀 또래엄마	
10	51세	대졸	1000만원 이상	은행 지점장	은행원	24년	성인 (23세, 22세)	성당 오케스트라	

## 2. 왜 전업주부를 ‘선택’하는가?

노동시장에서 취업여성으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던 여성들은 왜 전업주부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선택’은 자의적인 선택,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한 ‘선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 역시 이 두 가지의 ‘선택’을 모두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구조 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조차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보통 기혼 여성의 비취업에 대해서는 자녀의 돌봄시설 등의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담론에서 비취업 기혼여성, 즉 전업주부는 구조와 제도의 희생자로서, 선택에 의한 위치가 아니라 소극적 또는 강제된 위치가 된다.

‘선택’담론에서 남성에게는 전통적 성별에서 벗어난 경우에, 여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를 경우에 ‘선택’담론이 쓰인다. 둘의 공통점은 직업이 아니라 ‘주부의 일’을 하게 된 경우에 선택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성의 경우에 생계별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성역할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 환경에서 그러한 규범에 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주체의 의지를 강조하는 ‘선택’ 담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전업주부의 위치를 선택하였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같은 논리로 본다면 여성들도 경제력이 중요해지고 여성도 생계활동에 나서

야 한다고 하는 사회분위기에 반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선택’담론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담론은 구조의 힘을 은폐시키고 개인의 힘을 과대하게 보이게 한다고 박혜경(2009)은 지적한다.

이 장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를 떠나서 전업주부의 선택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연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전업주부의 선택이 과연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인지, 사회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 1)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던 연구대상자들이 전업주부가 된 시점은 ‘아이’라는 존재가 부각되는 시점이다. 사례 7, 사례 2, 사례 4와 같은 경우는 임신 소식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에 접어들었으며, 사례 5와 사례 9의 경우는 출산과 동시에 육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경우이다. 또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들의 돌봄을 의지할 곳이 없을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례 6과 같이 사회 속에서 떠도는 끊임없는 아이들에 대한 위협적인 담론들도 이들이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주변인들의 담론과 매스컴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그들은 점점 아이들을 위해 전업주부가 된 것을 합리화하게 되고, 전업주부로서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 이들 모두 자의든 타의든 결과적으로는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는 결정을 내려야만 한 경우이다.

〈사례 2〉의 경우 임신을 하고 직장을 다녔지만, 취업 주부의 경우에도 가사일은 여성의 몫이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포기한 경우이다. 여성이 취업상태일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분업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단한 여성은 임신으로 인해 더더욱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한계에 부딪힌다. 이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결심을 하는데 중요한 기제로서 작동한다.

00이 가졌을 때 일할 때도 입덧하고 있을 때인데 새벽에 5시에 나가서 오후에 일이 너무 많아서 4시에 들어왔어. 입덧도 하고, 임신한 것도 남편이 알고 있었고. 그런데 오빠(남편)가 들어오자마자 그러더라고. 배고프다고. (웃음). 그 때 시택이 같이 살 때였거든. 근데 그 날이 토요일이이었어. 그 때 아빠(남편)가 쉬고 있었거든. <사례2>

이러한 전통적인인 성별분업의 문제는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 얽힌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을 강요한다. 가부장적인 시택이라는 공간 안에서 여성은 임신을 한 몸으로 직장에서 일로 지쳐 가정으로 돌아와도 쉬고 있는 남편을 위해 밥을 차려야 하는 것이다. 사례 4의 경우에서도 가부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시부모님은 취업을 준비하던 며느리가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하자 ‘애들 잘 키워라. 그게 최고다. 애들 잘 키우는 게 최고다’라며 며느리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자녀 돌봄을 중심으로 한 전업주부의 중요성을 강화시킨다. 사례 4의 경우는 가족이 원하는 정도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불안하던 차에 임신이라는 것을 계기로 전업주부 ‘선택’에 있어 시부모님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여성들은 이미 직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돌봄을 위해 전업주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례 5의 경우는 금융계에 종사하며, 힘들었던 구조조정에서도 잘 견디어 왔는데, 아이가 100일 때부터 돌봄을 담당해주시던 분이 쓰러진 후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줄 시설을 찾았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경우이다.

그런데 그 분이 쓰러지셔가지고... 계속 정신은 깨 있으신데 몸을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맡길 데도 없고... 작년에는 애 유치원에 다닐 때인데... 유치원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다보니까 애듀케어반(종일반 개념)이 아니면...담임반... 뭐 1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봐 줄 사람이 없잖아요. 애듀케어반도 뽑기로 뽑으



니까... 에듀케어반이 안되면 못하는 거고... 그 분이.. 한 9월말에 쓰러지셨는데 3개월만 어떻게 친정에 애를 맡기고 에듀케어반에 뽑히면... 에듀케어반은 밤8시까지 봐주니까... 또 그렇게 버텨갈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안된 거지... 그래서 애를 맡길 데가 없고... 회사 생활이 힘든 것 보다... 애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사례 5〉

이 경우는 사회의 보육시설 미비라는 사회적 제도가 전업주부를 ‘선택’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5 자신은 전업주부로서의 선택을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이유로 전업주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암묵적인 사회적인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9의 경우 비슷한 경우이다.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임신 후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서 회사를 그만 둔 케이스이다. 돌봄을 담당하던 분이 갑자기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취업주부들은 당황하게 된다. 취업 주부를 위한 보육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가 가능한 보육시설에 진입하기에는 그 기회가 너무 적고, 이런 과정에서 보육기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결국 개인적인 선택으로서 자신이 보육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영유아 전담으로 돼 있는 시설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때는 개념도 개념이지만 엄마 직장 다니는 애들 다 때려 넣고 모아놓고 돌봐주는 거지 이게 뭐 케어가 제대로 되는, 각자의 관계에 맞게 선생님들이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 우리 때도 한참 육아서가 나오면서 개월 수에 따라 아이에 따라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질 때였어. 이거를 못하면 애가 무슨 바보가 되는 것처럼. 아 이거는 정말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직장을 다니면 이걸 못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사례 9〉

양질의 보육 서비스만 사회에 존재했다라도, 사례 9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여성을 돌봄을 담당하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

는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남성은 생계를 위한 노동, 여성은 가사 및 돌봄 노동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가부장적인 성별 분업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약간의 문제만 보여도 자신의 의무를 방치한 엄마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책하게 되며, 결국에는 이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 사례 6의 경우는 첫째 아이 때 일하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긴 것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으로 둘째, 셋째 아이는 아이가 말을 할 때까지는 자신이 보육을 담당한 케이스이다.

애가 생기는 게 전업주부가 된 거지. 애기 키울 때는 전업주부가 되지. 첫째 때 전업주부가 못 된 게 애한테 미안했거든. 애를 맡기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애가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놀이방에 맡겨놔도 막 울고 열에 들떠있고. 아픈 애를 맡겨야 될 때 특히 그럴 때 되게 힘들었었지. 애가 울고 이러면 내가 엄마로서 온전히 품어주지 못해서 이러나 괜한 자책감이 든 거야. 둘째 때부터는 애기 낳고 24개월까지는 내가 일을 안 하고 육아만 한다. 애도 24개월까지는 내가 키울 생각이야. 말을 하니까 그 때부터는 말이 터지니까. 놀이방에 보내도 뭘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아파트 사는 언니도 맡기라고 셋째야 이제 지원이 되니까 맡겨서 이제 좀 쉬어라 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 아직은 내가 힘들어도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사례6>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돌봄 기관의 열악한 환경과 여성은 시장노동을 하면서도 가정 내의 가부장적 성별분업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전업주부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왜 여성들이 사회의 돌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돌봄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것은 아이 보육에 대한 위협적인 담론이 그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마스크에서는 맞벌이 하는 부모가 부재한 사이에 집에 혼자 있던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뉴

스와, 보육 기관에서의 학대, 위생문제 등이 보도되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아이들의 사고이야기는 여성을 전업주부로 화석화시키는데 일조를 한다.

00아빠도 내가 일 안한다는 거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어. 불만이 없고. 물론 내가 일을 하고 싶어 하면 하라고 할 사람이지만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애 키우는 거 좋대. 다른 사람한테 애 맡기는 거 싫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00 아빠 옆에 앉은 과장이 어느 날 출근을 안했대.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조카가 죽었다는 거야. 조카가 00만 하대. 애보다 어리대. 할머니가 키우다가 교통사고 났대. 순간이잖아. 애들 튀어나가면 끝나는 거잖아. 원수되는거지. 자식이랑.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나서는 더더욱. 핏줄이라도 맡겼다가 애가 잘못되면 원수 되는 거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 얘기 듣고 나더니 집에 앉아서 애나 키우는 게 최고라고 엄마들은. 그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시골에 내려갔더니. 00아빠 외삼촌이 그러더라고. 애들은 엄마가 끼고 키워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애가 커서 나중에 사춘기 돼서 엄마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면 정말 할 말 없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사례1>

여기 성범죄자 열람할 수 있잖아. 같이 사는 아파트 언니가 이 동네에 있다고 하더라고. 저 쪽 동네에도 옆동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 옆 동네는 진짜 썩대. 스물 몇 살이래. 스물 몇 살이면 우리랑 같은 세대잖아. 아휴. .... 그리고 이 동네는 할아버지래. 끔찍하지. <사례2>

위의 사례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아이들을 상대로 한 위협적인 담론들은 여성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거나, 이미 가정에 있던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주변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한 몫을 하게 된다.

이는 취업 주부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만둘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뒷받침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전업주부 또한 취업 주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

는 한 방편으로 이러한 담론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는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믿을만한 돌봄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 머물지 못하고 내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혼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가정 혹은 사회에서의 성별분업 강요와,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부족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로의 선택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 2) 여성들에게 노동시장이란?

여성들이 전업주부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각자의 삶속에 다양한 맥락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정과 사회에서 돌봄과 가사노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제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를 제외하고 모든 면접 참여자들은 시장노동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사례 4의 경우도 임신과 함께 취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면접 참여자 모두 노동시장의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례 5, 9, 10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머물렀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이들이 전업주부로서 선택을 하는데 기제로서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2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한 후 직장을 그만둔 경우이다. 결혼과 임신으로 인해 고용주에 의해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경우인 것이다.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특정 계층의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언제든지 대체인력으로 채워질 수 있으며 안정성이 부족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된다는 인식이 고용주에게도 있는 것이다.

결혼하고 2달 더 다니고 일을 그만뒀지. 바로 임신해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임신하고 그러면 힘들지 않겠냐? 그만 두라는 식으로 그니까 좀 좋게 그만 두라는 식으로 말을 하드라고. 그랬지. <사례 2>

〈결혼 전 했던 일은?〉

그냥 회사. 사무직. 되게 작은 회사여서 4대 보험도 없었어요. 〈사례 3〉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혼을 할 때 어 남편이랑 무자녀주의를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에. 그리고 그 때도 이상적인 생각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어 독립다큐 작업을 했었는데 남편한테 이게 돈버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례 7〉

사례 3 역시 4대 보험도 없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직장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미련 없이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사례 7의 경우도 결혼 당시 ‘남편과 무자녀주의’를 합의하고 독립 다큐 제작을 하는 일을 해 왔으나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경우이다. 이 결정에는 자신의 입장이 ‘돈버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이유가 뒷받침되었다. 이들이 일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족이나 직장의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의 일자리라는 것이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탈이 가능한 곳으로, 오히려 가족과 직장으로부터 암묵적인 지지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례 4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대학원을 마치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결혼을 한 사례4는 결혼 후에도 기혼이라는 조건이 취업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혼인 신고도 미룬 채 구직 활동을 한 경우이다. 사례 4는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불안정한 일자리 보다는 공무원이나 전문직 같은 안정된 일자리에 취직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임신임을 알고 구직활동을 그만 둔 경우이다.

그러니까 월급도 한 돈 200은 벌어야 여자가 그래야 뭐 애 키우고 뭐 이러는 비용도 댈 수 있을 거고 최소한 200정도 이정도 이상은 되고 출퇴근시간 칼같이 가정생활에 뭐 가사일 하고 살림하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 할 수 있게 6시 되면 칼퇴근 해가지고 저녁식사하고, 집안일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생각하는 정도. 그 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원서 넣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데만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직장이라고 뻔히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면 온 일상은 여기 직장에 바쳐야 하는데 그런데는 우선은 제외 되는 거고. <사례4>

내 남편은 정규직. 정규직에 머리로 좋아야 되고, 직장도 안정 되고. 그런 직장은 없잖아요. 없는데 대기업이나 되게 좋은 곳으로 원서를 넣어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데를 넣으려고 했더니 인턴 이런 거라도 넣으려고 했더니 ‘그런 데를 왜 넣냐 그런데는 돼봤자 결혼했다 그러고 임신했다 그러면 어차피 그만두라고 할 텐데’ 그리고 그런 압박이 있어서 그런데 당연히 그런 좋은 데는 넣으면 당연히 안 되죠. 저 같은 정도가. 스펙이나 한계는 제 개인적으로 의기소침해 있기도 하고. 좋은 직장만 해야 한단데 좋은 직장은 현실적으로 너무 없고 있다고 해봤자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고, 뭐 잘 안되죠. 그러다가 이제. 원서 넣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구직활동도 침체되고 슬금슬금 기죽고 이러다가 임신이 딱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끝난 거지 뭐.<사례 4>

사례4는 만약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안정성을 떠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곳에 취직을 할 취업할 의사도 있었지만, 결혼 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사례 4의 적성과 희망 보다는 안정된 수입으로 가사와 육아를 대신 할 수 있는 일자리만을 그녀에게 강요했다. 이는 여성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대체인력을 고용해서라도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가부장성을 의미하며, 안정되지 않는 노동환경은 이러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요건이 되므로 여성들을 전업주부라는 틀로 밀어 넣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례 4 역시 가사와 육아에 필적할 만한 ‘일’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업주부로 포섭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만일 홀몸이었으면, 그냥 결혼 안한 상태고 나 혼자였으면 나 혼자 생각이라면 진짜 어디라도 어디든지 취직 우선 해보겠다. 인턴이라도 뭐 비정규

직이든 좀 안좋은 회사라도 우선은 취직을 해서 거기서 경력을 쌓을 생각을 했었을텐데 우선은 딱 그 앞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되야 직장도 다닐 수 있지 않냐, 전문직, 공무원 이 정도는 그러면 집에서 집에 있는 게 돈이 덜 들지 여자가 집에 나가서 일하는 게 이익이 아니다 오히려 손해다.’ 이런 게 딱 박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매몰 되가지고 시도조차도 하기가 어려웠던 거 같아요.<사례 4>

이들은 모두 임신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경우이다. 전업주부가 되는 것에 대한 최종선택은 결국 스스로 했다고 본인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또 다른 기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머물렀던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은 애를 낳는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지지받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녀의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가부장적 성별분업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여성들을 바로 전업주부로 포섭하는 것이다. 좀 더 안정된 직장으로의 진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가정으로의 복귀를 가족들과 사회가 지지하는 것이다.

### 3. 전업주부의 경험 속에서의 ‘갈등’ 과 ‘기대’

박소진(2007), 이경아(2009), 박혜경(2008) 연구에서 보이는 중산층 전업주부들처럼 이들에게는 전업주부로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많지 않다. 이들은 전업주부로 머물러 있는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전업주부에서의 탈출을 꿈꾸며 ‘갈등’과 ‘기대’사이를 각축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보이는 ‘교육매니저’, ‘가정의 CEO’, ‘프로주부’라는 담론과 사회적 분위기로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낸 신자유주의와 신가족주의에 포섭되었던 중산층의 주부들과는 달리 이들은 이 범주 속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들의 성장과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이들의 입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도 때로는 신가족주의에 포섭되고 때로는 신가족주의에 저항하는 이들의 모습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포섭과 저항사이에서 경합하는 상황을 전업 주부로서 느끼는 ‘갈등’과 ‘기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낮은 자존감과 역할 만족도

면접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그 대답은 다양했다. 서류를 작성할 때나 인터넷 가입 시, 사례 1, 2, 3, 5, 8, 9는 주부가 직업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들이 직업을 주부라고 말하는 것이 주부를 시장노동에서의 ‘직업’과 상응한다는 생각에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사례 2의 경우는 전업주부로서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끼며, 남편 또한 가사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으며, 전업주부인 자신에 대해 ‘막 대한다’는 느낌이 들며 자존감에 상처 입은 사실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들 전업주부들은 자신이 전업주부임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며 사례 4의 경우 직업을 묻는 상대방에게 ‘그냥 집에 있어요. 애 봐요.’라고 대답하는 등, 남편이 사례 4가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말을 할 때 상처를 받는 일이 많으며, 남편이 원하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안정된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존감이 상실될 때가 많다. 사례 6의 경우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직업이 뭐냐는 말에,

살림해요 이리지. 집순이에요. 그러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조금.. 애기 하나 키울 때는 저기 했는데 그게 지금은 자부심있다고 해야하나? 거기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는 애를 셋이나 낳고 42살에 애를 낳고 나는 모유수유를 성공했고. 모유수유를 50% 엄마들이 이제 혼유도 많이 하고 여성의 몸이 애기 낳고 망가져있는 상태에서 젓까지 먹어야 하니까 허물고 갈라지고 찌지고 애기가 뺄 때마다 엄청나게 아프거든. 그런 거를 다 견뎌내야 돼. 완모의 저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도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사례 6>

처음에는 직업으로서의 주부라는 의식이 없었는데, 육아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해 나간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한명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자부심이 아이 셋을 낳으면서 회복되어간 경우이다. 전업주부로서 아이 셋을 낳아 사회에 이바지 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회가 요구하는 주부상에 포섭되어 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자녀생산과 돌봄이라는 가족중심의 임무를 다하는 것에 만족케 하려는 신가족주의의 논리에 포섭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상층의 교육열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같은 전업주부이면서도 자존감이 상실된다고 느끼는 경우에서도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 계층은 중상층 전업주부에게도, 취업주부에게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자존감을 상실해 가는 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신가족주의로 인해 스스로 자존심을 잃어가는 계층이 되기도 하고, 대로는 신가족주의에 포섭되어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회복해 나가기도 한다.

교육열이 이렇게 심한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놔서 기르는 편인데... 막상 딱 전업주부가 돼서 보니까... 엄마라고 해서 딱히 뭘 내세울게 없는 거예요.<사례 5>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두된 전업주부의 표상인 ‘교육매니저’에 이르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은 이미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신자유주의와 신가족주의에 포섭된 것이다. 이는 이들의 롤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들의 롤 모델은 사례 1의 경우처럼, 근검절약하는 주부의 경우도 있지만, 사례 6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는 취업주부이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성공한 중산층 혹은 전문직 여성들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이 전업주부로서 자신들의 위치에 어느 정도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사례7>의 경우도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웃음) 전업주부란 말은 하기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가정살림을 열심히 잘 하진 않고. (웃음) 애 키우는 것도 사실 되게 버겁고 힘들어요.’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다.<사례9>의 경우 역

시 주부라는 직업에 대해 부정적이다.

주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있어.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 하도 쟁쟁거리니까 그래 가사노동 너네 이 정도는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정말로 주부라는 직업은 제일 지저분한 거부터 해서 제일 어려운 거까지 해야 되잖아.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는 거부터 해서 그거를 다 해야 되는 직업인데. 내가 볼 때는 직업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사례9.>

사례 9에게 있어 주부는 직업이라는 허울만 있는 껍데기만 직업인 것이다. 전업 주부라는 것은 사회에서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가사노동을 인정해주는 척하며 전업주부를 포섭하려는 신가족주의에 대한 저항이 뚜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2의 경우는 시부모님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주부의 역할을 강요받기도 한다.

가족 중심의 주부로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내몰린 이들의 낮은 자존감은 남편과의 가사분담 요구에도 당당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례 3의 경우는 만약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함께 할 경우 자신의 정체성이 시장노동이 우선일 것이며, 남편에게도 가사분담을 좀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이는 주부가 직업이라고 대답하는 이면에 스스로가 주부는 직업이 아니라는 부정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것이 남편에게 가사분담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는 신가족주의에 스스로가 포섭되어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가사노동은 이미 일이 아닌 시장노동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괴롭기도 하다.

저는 진짜 전업주부 안하고 같이 일하고 싶거든요. 주부의 위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꼭 필요한 인력이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것 같은 느낌

을 받아요. 집에서 바닥 몇 번 더 닦고 밥하고 이런 거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할 때랑 집에서만 할 때랑... 솔직히 집에서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사 례5>

같은 가사일도 오히려 직장다니는 때보다 전업주부 때 하는 것이 더욱 벅잡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압박감과 사회적으로부터의 고립감이 더해져서 일 것이다.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살이 빠졌다니까...(웃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고 티 안 나는 건지 아무도 몰라... 돈도 못 벌어... 그렇다고 전업주부에게 수당을 주자...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 개개인한테 100이든 200이든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개개인이 그 일을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집에서만 일을 하지 않고 밖에서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전업주부 돈 얼마 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야. 그 수당이 밖에 나가서 버는 것만 하겠냐고... 왜 여자들은 이렇게 놀리냐고..<사례5>

주부를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노는 듯한 느낌이며 주부라는 일이 살이 빠질 정도로 힘들다고 호소한다. 시장노동에서의 생산적인 일만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부수당보다는 밖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그러면서도 시간제 등의 일을 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집안일을 팽개치고 나가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제는 정말 짜다고 하더라구요. 시급 2,000~3,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사례5>’라며 부정적이다. 동시에 ‘가사노동은 생산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며, 뭐든 돈을 아끼기 위한 것 뿐’이라며 가사노동을 규정한다. 반면 <사례6>의 경우와 같이 정부에서 육아수당이 나온다면 ‘애를 보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사례6>의 경우도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남성의 역할이며, 자신이 가장으로서 돈을 번다면 만족도도 떨어지고 재

미도 없을 것 같다고 한다. 즉 책임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인식했지만, 희미하게나마 자신이 전업주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마음과 그대로 포섭되어버리고 자 하는 두 상황이 이들의 인식 속에서 경합을 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사례 7의 남편과 사례 8의 경우는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는 주부는 논다’고 생각하며,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들의 인식 또한 그저 ‘논다’는 식인 것이다. 사례 7의 경우는 가사노동은 노동이라는 인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즉 ‘돌봄’에 있어서는 다른 반응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부의 노동을 교환가치로 환산한다면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이들을 직장에서 내몬 현실적인 육아문제만이 이들의 시장노동을 대치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 했다가 폐기됐다면서요? 하루 일 중 음식 만드는 거 얼마? 뭐 실제로 사람을 썼을 때로 했는데 통계로 돈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200만원 나왔어요. 나중에는 집안일을 해도 집안일을 한 그 수준. 그게 다 다르고. 이 사람은 요리사 수준으로 하고 이 사람은 대충. 하니까 평균적인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부들이 하는 돌봄 노동이 일정정도 돈의 가치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 7>

면접에 임한 전업주부들의 경우는 사례1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업주부에 대한 역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사례 2, 5, 8의 경우처럼 주부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집에서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주부로서 항상 부족한 마음뿐이고,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례 3의 경우는 자신은 주부로서 적성에 맞지 않으며, 자신은 ‘프로페셔널한 주부’가 아니라고 하며 스스로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 3의 경우 주부라는 ‘프로페셔널한 주부’에 자신이 이르지 못했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 나름의 주부로서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증산층 전업주부들에게 부여하는 전문주부의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시장노동을 지향하며 그러한 신가족주의에 저항하려고 애쓰는 반면, 사회적 구조가 만든 ‘가정을 지키는’ 여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 할 만큼 신가족주의를 의식하며 괴로워하는 주체들이기도 한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부류라고도 할 수 있다. 사례 4의 경우는 전업주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그..저는 아주 최근까지도 스스로의 정체성 누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저 스스로 생각은 구직자다. 실업자다. 청년실업자라는 정체성을 나 혼자 아무도 인정 안하지만 하지만 나간 적은 없지만 좌절됐을 뿐이지 언제든지 나갈 의향이 있고, 정말 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뿐이지. 나는 구직자다 구직 실패자다 그런 정체성을 혼자서(웃음)식구들이 정말 어이없어 했죠.<사례4>

전업주부를 스스로 일을 안 하는 자, 노는 자로 인식하는 것은 이들에게 당당하게 가사분담을 남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불이익을 안겨다 준다. ‘가정의 CEO’로서 가정의 모든 일을 포함한 재테크에도 전문적인 능력을 펼치는 증산층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경제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인 거는 음...그냥 나는 남편이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내가 얼마나 쓰는지 알겠죠. 돈을 타서 사니까. 아우 열받아. 정말.<사례 4.>

남편은 속마음은 왜 없겠어요? 우리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 큰 소리 치는 편이에요. 내가 걸리는 건 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상황. 그것 때문에 내가 이혼 못하겠다는 생각에 도달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내가 남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겠구나. 같이 살아도.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했었거든요.<사례 7>

경제권이 없다는 것은, 일자리 진입이라는 욕구를 끊임없이 갖게 하고, 이들이 자녀 양육이라는 전업주부를 선택하게 만든 기제만 해결이 된다면 언제든지 전업주부 탈출을 선언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업주부라는 것이 여성에게 부가된 고정적인 이미지가 아님을 시사하는 바이며, 이는 한정적인 입장이고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위치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전업 어머니'로의 정체성 : 교육은 내 방식대로

IMF 구제 금융의 충격이후 더욱 강조된 신가족주의는 가족의 화목과 사랑으로 남편의 '기'를 살려주어야 한다는 감정적 요구를 여성들에게 해 왔다. 이런 기살리기 운동은 주부에 대한 계몽적인 담론처럼 확대되었다(박혜경, 2009). 하지만 이런 신가족주의 운동과는 달리 면접에 참여한 주부들은 끊임 없이 남편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은 가사분담도 있지만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육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는 주부들에게 남편의 기 살리기라는 감정 노동에다가 더욱 헌신적인 어머니상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남편과의 갈등 중 오히려 '아내'로서 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교육에 대한 문제로 인한 고민이 더 많은 점을 본다면, 전업 주부를 뛰어 넘어 '전업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사례1을 제외하고, 다른 면접 참여자들은 주로 양육에 대한 갈등이 많다. 주부의 역할이 가사보다는 양육이 우선인 듯하며 반면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상당히 크다. 이는 이들이 남편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례 2의 경우처럼, 좋은 남편이란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경우를 말하며, 전업주부에게 있어서 양육이 남편들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애가 잘못되었을 때? 남편은 제 탓이라 생각하죠. 물론 너도 힘들겠지만! 네 탓이야. 제가 주 양육자가 되니까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애가 잠을 잘 안 자려고 해요. 늦게 자고 하면 얼마 전에 경찰 민원까지 들어왔거든요. 울고 떼쓰고 그래서. 이웃에서 신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한바탕 한 다음 경찰이 갔는데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잠을 일찍 재우지 그랬냐며. 그래서 저도 화가 났었죠.<사례 3>

<사례3>의 경우 결혼 초에는 주로 시댁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있었는데, 아이의 출생 이후 주로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있다.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머니에게 전가되어 가사노동뿐만이 아니라 양육에서도 성별분업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례 4 또한 아이의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있었다.

음... 그래도 엄마라고 하면은 그러면 웬지 부족한 엄마 같고, 더 많이 뭐 더 사랑해줬으면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서. 어린이집을 22개월 때 보냈어요. 보낼 때 그 어린애를 어린이집을 보내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이집 일찍 보낸다고, 그럴 때 죄책감 되게 많았죠. 안 간다고 울고불고, 애기 떼놓고 전업주부인데도 어린이집 일찍 보내는 건 너무 하지 않냐, 맞벌이도 아닌데. 그러면 일찍 데리고 와야 하는데, 피곤하고 막 6시에 데리고 오면 막 애를 왜 이렇게 늦게 내버려뒀냐고 그리고 막.

<집에서 일도 해야 하고 그랬을 거 아냐?>

그러니까 집안일도 하고 그러면 조금 숨 돌리고 그러면 금방 시간 지나가고 그랬어요. 큰 애는 그랬어. 되게 죄책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네 살 때 보냈어.

<아, 일 년 늦게>

어. 그런데 늦게 보내니까 애가 느리다고. 큰 애보다 애가 늦다고 엄마가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어린이집 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둘째는 교육을 안시켜가지고 애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고 또 엄마한테

<이러나저러나>

응, 이러나저러나 일찍 보내나 늦게 보내나 다 엄마 탓이래. 그리고 또 둘

째를 제가 늦게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베이비시터를 뒀어요. 너무 좀 둘째 때는 00회에 가끔 가고 그랬잖아요. 너무 숨이 막히잖아요. 밖에서 활동도 하고 그러고 싶었어. 그래서 베이비시터도 가끔씩 쓰고 그랬는데 낯선 사람한테 맡기고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그때 또 애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그러겠냐고 이러면서. <사례 4>

아이에 관한 한 어떤 방법을 취해도 자녀의 책임은 오롯이 여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사례 6과 사례 8의 경우도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에 일찍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사례 7도 엄마역할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미안해한다. 사례 8은 자녀의 아토피가 자신의 영향인 것처럼 느껴져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이다. 육아문제 뿐만 아니라 아이의 교육문제에서도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 되어 주부의 역할 중 ‘어머니 노릇’이 강화되어간다. 이것이 모성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끊임없이 자녀에게 베풀고 자녀에게 문제가 보일 때마다 주부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자녀들을 둔 면접 참여자들은 전업주부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 시기는 자녀들의 돌봄 시기와의 맞물려 있는데, 이 돌봄 시기가 언제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이들을 이로부터의 탈출과 포섭이라는 기로에 놓이게 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돌봄 시기는 짧게는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길게는 대학생 때 까지 다양하다. 사례 1은 20살 정도, 사례 3은 7-8살, 사례 4는 초등학교 고학년, 사례 5는 중학교 졸업 시까지, 사례 6, 9, 10은 대학교 1학년, 사례 7은 차고 넘치게, 사례 8은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를 돌봄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이기에 이 시기가 정확한 돌봄 시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이 돌봄의 시기만 끝나면 언제든 전업주부를 탈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눈여겨 볼만한 것은 이미 취학한 자녀를 둔 보조 사례 9, 10의 경우는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편이지만 대학교 입학까지를 돌봄 시기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미취학자녀의 어머니인 면접참여자들도 앞으로 얼마든지



유동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시기?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시기. 고등학교 입학, 대학입학은 엄마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지가 알아서 했으면 해. 그리고 애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예를 들어 엄마가 직장을 가도 퇴근할 때 까지 자기 스케줄을 학원도 가고 간식도 먹고 숙제도 하고 있을 정도가 될려면 고학년은 돼야 돼. 그 정도 되면 혼자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해 놓으면 1,2학년도 하는데 그 때는 너무 본인 혼자 학교갔다가 와서 알아서 혼자 하면 약간 불안해하는 거는 있어. 왜 안가도 돼야 되는데 형들 따라서 피씨방을 간다든지. 자잘하게 빈부분을 애가 컨트롤을 못하잖아. 고학년이 되면 숙제도 많고 어차피 엄마가 오기 전까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이 30분 이런 게 참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10분의 틈도 없이 시간을 짜놓을 수는 없잖아. 놀이터에 놔두면 놀이터에 애들이 없고 피씨방 따라서 갈수도 있고 방치가 되는 게 저학년 때는 애들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사례 9>

이들은 자녀들이 아직 미취학 아동들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사례 1의 경우처럼 교육문제에 끊임없는 모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좀 더 크면 교육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겠지. 이 동네만 해도 애들이 바글바글 하고 그러니까. 교육열이 꽤 높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비평준화 지역이야. 아직도 연합고사 보고 학교 들어가. 고등학교도 서열이 있어 그래서 성적순으로 학교를 가는 거야. 서울처럼 뽕뽕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교육열이 높아. 초등학교도 어디가 좋다 이런 말이 있어. 그거 따라서 엄마들이 이사가. 초등학교는 주소로 가니까. 같은 한 동네에도. 몇 단지 쪽이 좋네 어떻게. 이러지. 00가 학교 갈 때 쯤 되면 나도 그런 고민은 하겠지. 교육부분은 고민을 할 거 같아, 어떤 부모나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마찬가지니까.

<사례 1>

초등학교에 접어들면 교육이 걱정될 것 같고 유치원에서는 맘껏 뛰어놀지만, 돈만 있으면 아이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라도 가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다. 사례 3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교육에 전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례4의 경우는 교육은 흐름이 아닌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사례 4는 자신은 방목이라 하고, 남들은 자신을 향해 방임이라고 하지만, 뚜렷한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주관을 가진 케이스이다. 사례 5의 경우도 현재의 경제 상태로는 아이의 교육적 뒷바라지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교육제도에 편승할 마음도 없음을 밝힌다.

지금 제 생각은 우리나라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중고등학교도 학비가 안 드는 국악 쪽으로 가거나... 거기는 국립이니까... 거기는 또 원하면 기숙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국악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도 하고 있고... 애가 대학교를 가든 안가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리고 군대를 먼저 갔다 오게 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PVT(?)에 보내고 싶거든요. 지금 세상에서는 남들과 똑같은 스텝으로는 취직을 못해... 그런데 똑같은 스텝을 위해 드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스라엘 PVT(?)는 자기가 돈 받으면서 노동을 하는 거잖아 노동을 하고 세계 여러나라 애들이 오니까 당연히 영어는 할거고... 우리 계획은 일단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애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거...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애 학비를 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남편이 혼자 벌어서... 진짜 살기도 어려운데... 부모님들까지 우리도 부양을 하니까...〈사례5〉

사례 6, 8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며 이들의 경우는 집에서 아이들을 자가지도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든 사례9의 경우는,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큰 애는 지금 영어학원만 다니고 다른 거는 수학학원이랑 막 보내 달래. 초

등학교 때 수학 과외를 시켜봐서 수학을 좀 하나보다 했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을 못 구하고 학원도 마땅치 않아서 집에서 시켜보니까 안 돼 있는 거지. <사례9>

사교육도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공교육 자체가 사교육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숙제양이 워낙 추상적으로 나와서. 그리기 글짓기 대회 이런 것도 있어서 우리 때는 학교에서 그냥 그리기 대회면 반공그리기 그런 거 했는데 요즘은 미리 해줘. 그거는 집에서 엄마가 시키란 이야기야. 환경에 대한 그리기 대회를 합니다. 그럼 준비해주세요. 이래. 00아 뭐 그릴래? 설명을 해줘 내가. 뭐 그려야하지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해. 귀찮거든. 근데 미술학원 다니는 애들은 미리 한 두번 그려가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상을 받는 거지. <사례9>

사례 10의 경우는 아이들 스스로 공부한 경우라고는 하지만, 오랜 외국 생활로 아이들에게 외국어라는 ‘자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본인들이 알아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큰애도 작은아이도 그렇고. 작은 아이가 물론 학교를 못가고 저러는 거는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재는 또 다른 거대한 스토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례10>

미취학 아동을 둔 이들은 아직까지는 교육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윤택림(1996)은 현재 가정 교육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사교육의 내용을 채우는 것들은 주부가 다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사교육 시장의 강화는 사교육 산업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고 그 정보를 얻고 가구의 수입에 맞추어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 매니저’로서 전업주부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중산층 전업주부와는 달리 면접에 참여한 주부들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미취학 자녀들의 어머니인 만큼 자

녀교육에 한발 물러서있는 것처럼 보이며, 중산층 전업주부들과는 다른 교육 관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다. 윤택림(2001)은 근대의 과학적이고 집중적인 어머니 노릇의 창안 이래 자녀교육은 주로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중산층의 주부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했을 경우, 혹은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들은 언제든지 ‘교육매니저’라는 전문적 어머니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신가족주의로 전업주부들이 계속 포섭되어갈 것인지, 아니면 탈출할 것인지를 가름할 지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또 이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더욱 더 어머니 노릇이 강화됨으로서 전업주부가 여성에게 부여되는 고정적인 위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교육시스템에 저항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시기에 일시적으로 강요되고 시장노동으로 진출하는 위치가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자기 인식 형성의 확장으로서의 ‘네트워크’ 활동

이들은 자녀들의 돌봄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나면, 자신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례 1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영어를 배우고 싶고, 사례 2도 수화, 커피, 떡을 배우고 싶어 한다. 사례 3의 경우도 자아실현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욕구가 있으며, 자신들의 노후도 설계해보기도 한다. 또한 취미로 피아노도 배우고 싶어한다.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신이 없으며, 사례 4와 ,사례6처럼 경제적인 면만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아실현과 자신의 만족도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욕구도 생겨난다. 하지만 언젠가는 전업주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만은 공통적이다. 돌봄 시기가 끝나고 어떤 형식으로든 전업주부를 탈피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들은 다양한 관계망을 펼치며 그 안에서 자기 인식을 확인해나간다. 그 관계망이란 시댁과 친정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경우도 있다. 핵가족이면서도 대가족의 연계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는 부계족이든 모계족이든 친족들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

고 이 일은 여성의 일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윤택림1996). 하지만 이 외에도 전업주부는 가족 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문옥표,1992). 특히 면접 참여자들의 경우는 가족 성원 중에서도 자녀들의 친구 엄마를 중심으로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종교 활동, 단체 가입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기도 한다.

하지만 사례 7처럼 전업주부로서의 고립감을 해소해보고자 아이와 함께 구민회관 문화센터를 통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지만, 전업주부 네트워크 속에 자신이 녹아들 수 없음을 느끼고 그 관계망 속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일을 설계한 경우도 있다.

내가 예전에 사진도 찍었고 다큐를 했는데 당장 내 업으로 하라고 했을 때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자원과 능력도 없는 거야. 오랫동안 안했고 그 때도 배우다 하차한 경우이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 제 화두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를 찾겠다. 나이 40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전에는 낙오자야 도태했어, 당장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냐 돈도 되고 다 댔을 때 하고 싶은 게 뭐냐 정말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걸 잘 해서 그걸로 경제적인 독립이나 자립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은 걸 찾으면 당장 못하면 투자하고 나의 어떤 실력과 능력을 쌓는 시간도 필요하겠단다. 길게 봐야겠다. 50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직 다큐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발견했어요. 아이와의 갈등을 이 카메라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족에 대한 허구성을 드러내는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사례7>

전업주부로 머물러 있는 자신을 ‘낙오자’ ‘도태한 사람’로 정의내리고 이를 탈피하고자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 나간다. 사례 7에게 전업주부란 사회시설이 미비한 현 사회에 대한 일시적인 타협일 뿐 계속성을 지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물론 사례 8처럼 자신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직 ‘전업 어머니’로서 아이들만 생각하며, 스스로의 욕망 혹은 욕구를 누르고 있는 존재도 있다.

지금은 오직 가족의 삶 안에서 사는 게 커졌어요. 애들이 없을 때는 가능했는데 일단은 애기가 태어났으면 애기한테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애네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나의 뭔가를 찾아서 행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례8>

하지만 사례 8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접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위해 뭔가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사례 9의 경우는 점점 잃어가는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찾고자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상담도 받는 등, 허탈한 자신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첫째(를) 키우는 애는 이런 걸 어떻게 할 줄 아냐고 그래. 그게 애한테는 중요한데 내 인생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마흔인데 앞으로 80까지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나에 대한 것이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허전해서 강의도 들으러가고 책도 읽고 상담도 받아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핑계이긴 하지만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본일이 없을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해본 일은 없고 어렵단 생각이 들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다 해보면 나오겠지 이러는데. 언뜻 해도 안 나오는 게 내안에 뭔가가 내 안에 갇은 바닥이 난거야. 애들 걸로, 남편 걸로는 채워져 있고 생활적인 것으로는 채워져 있는데 그냥 나로 보면 바닥이 난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남편도 애들도 가족도 다 모여서 내가 된 거지 싫다가도 내 꺼는 안 보이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사례9>

이러한 욕망은 먼저 자신을 찾는 것이고, ‘내 꺼’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전업주부로서의 자신의 위치는 온전히 ‘나’도 ‘내꺼’도 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나’와 ‘내 꺼’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길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시장노동의 경험이 있던 자신이 다시 시장 노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시 시장노동 속으로 진입하기 위해 어떤 모색을 하고 있을까. 사례 3의 경우는 애들이 진학할 때쯤, 대학진학을 고려하고 있고, 사례 4도 뚜렷하게 무어라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꼭 하고자 한다. 사례 5의 경우는 시장노동 속으로 진입하기에는 나이가 장벽이 되기 때문에 시골에 마련한 땅이 있어 그곳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사례 6 또한 아이들이 성장한 후 논술강사로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자 하며, 사례 7도 다규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사례 9 역시 자신의 대학 전공을 살려 ‘답사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도전하고자 한다. 즉 이들은 양육을 위해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이며, 자녀들의 돌봄 시기가 끝나면 언제든지 시장노동 속으로 재진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 욕망을 구체화시키고 키워나가며 자신을 확인해나가는 것이 그들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인 것이다.

〈본인에게 그럼 가족의 의미는 뭘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막하고 애를 키우고 이럴 때는 배신당한 기분이었고, 가족 자체가 더 좌절감을 주고,, 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다가 요즘엔 애도 좀 크고 00회(단체) 덕분인거 같긴 한데.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좀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좀 많이 바꿨어요. 음.. 지금은 남편도 그러고, 많이 바꿨어요. 나는 정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사나. 앞으로 미래에 부모님 세대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면 너무 막막하고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정말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딱 벌써 보면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성장하면서 이 사람도 변화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성숙한 관계로 나중에 노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진짜 그거는 행복이다 라고 요즘 최근 들어서 생각했어요.〈사례 4〉

사례4가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 전업주부로서 좌절하고 힘들었던 자신을 재무장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해가는 것처럼 다른 참여자들도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립되고 박탈당한 듯한 전업주부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례3의 경우는 여성단체의 커뮤니티 안에서 소모임들을 구성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으며,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같이 엄마들만 가는 여행이라던가. 애들은 아빠한테 다 맡기고 엄마들만 1박2일로. 여행 다녀온 엄마가 영어회화가 필요하겠더라. 영어회화 모임도 구성 중이고. 한 번 모임이 시작되니까 작은 소모임들이 생겨나는 거죠. 성당 단점은 30대 기혼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자모회 아니고서는. 아이들 활동하면 간식해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아이들 뒷바라지지. 성당은 좋아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애들 누가 봐줘야 할 수 있는데. 토요일마다 초등부 유치부 있어도 영아부가 없으니까. 성당에 유치원이 있으면 좋은데. <사례3.>

사례 4처럼 임신과 함께 오는 사회적 고립감과 박탈감으로 힘들었을 때 여성단체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해,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간 경우도 있다.

00단체 가입은 그러니까 임신하고 구직활동을 막 하다가 임신을 했을 때 좌절되는 순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내 인생 끝났다 그때는 나는 패배자고 나는 실패했다.

<시작도 못해봤는데>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그 자괴감에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어요. 집안이나 이.. 어쨌든 고학력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기대치나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거 같고 되게 힘들었는데 힘들고 그래서 막 나자빠져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그렇다고 정말 끝내야 하나 어 정말 이게 정말 이게 끝나야 되나? 이게 정말 끝이야? 정말 끝난거야? 의미 없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끝났다고 해도 어떻게 살어. 그러면은 이제 막 찾기 시작했죠. 컴퓨터 앞에서 막. 뭔가를 찾아야 돼. 그때 들어왔던 게 여성주의였던거 같아. 원래 그 전부터 여성주의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는 하지만 내가 폼나는 직업을 가져가지고, 폼나게 활동을 하고, 폼나게 운동하겠다. 우선은 내가 멋진 직업을 가져야돼. 사회의 어떤 지위 올라가서 그런 생각. 운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게 좋은 일이니까. 직업을 못갖게 됐지만 없으면 어때. 정말 하고 싶었다면 폼 안나도 그냥 하면



되는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 길이 있나 찾아보자 하다가 여성주의 관련된 단체들을 여러 개 그러니까 00회도 있고 <사례 4>

다른 면접 참여자들과는 입장이 약간 다른 보조 사례 10의 경우는 전업 주부들의 네트워크가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전업주부의 탈출에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기도 한다. 사례10는 현재 영국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에게로 둘째 아들이 대학입시가 끝나면 돌아갈 예정이지만, 가사와 자녀, 시아버님 양육을 오랫동안 한 경험자로서 역시 전업주부보다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 사례 10은 성당에서 자원봉사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았고 그로 인해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자신의 남은 인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주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고자 한다.

애들이 커가면서 점점 제가 느끼는 게 전적으로 어릴 때는 자기만을 바라봐주는 것을 바라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엄마들을 바라요. 그게 참 말도 안 되지만. 크잖아요. 애들 다 그럴걸요. 친구한테든 누구든 어디든 자기엄마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그거가 있는 꺼리가 있는 거를 원해요. 다. 직장다니는 엄마들이 그게 불편했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엄마가 자랑스러울 걸요. 아 그렇겠구나 그런 순간순간을 느낄 때가 꽤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내가 그랬어 00은행 다녔어 이런 이야기를 해본적도 없지만 지나가면서 3년전 4년 전부터 드는 생각은 엄마한테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구나 엄마가 그랬으면 좋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성당 오케스트라) 맡아서 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러면서도 재밌게 하고 제가 몰랐던 거를 저 스스로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있지만 제가 와서 이렇게 그 와서 보고 말하는 그런 게 자랑스러워 하고 오오 하고 등을 두드려줄줄 알고 자기 친구들 데려올 줄 알고 같이 보고 어땠냐 그런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긴 과정들을 보면서 애들이 커가면서 사회적으로 일하는 엄마를 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집에서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키우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냐고요. <사례 10>

전업주부들이 참여하는 모든 네트워크가 전업주부를 탈출로 인도하는 장은 될 수 없다. 하지만, 가족과 친족 내에서의 관계망보다는 좀 더 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찾는 계기를 마련한 사례도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는 전업주부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임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본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처럼 노동시장에서 일하다가 임신, 출산, 자녀돌봄 등을 위해 전업주부를 선택하고, 자신들은 자녀들의 돌봄때문에 일시적인 전업주부가 되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언젠가는 전업주부를 탈출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부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관계망은 많은 의미와 계기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 4. 대안: 현재의 ‘전업주부’ 이대로 좋은가?

##### 1) 전업주부 정체성에 대한 ‘통념’깨기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하여 혹은 간혹 주변에서 ‘남성 전업주부’에 대한 담론이 드러나고 있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전업주부=여성이라는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남성 전업주부 담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남성이 전업주부를 선택했을 경우는 특별하게 ‘의식있는’ 이미지로 비추어지거나, 아니면 시장노동에서 밀려난 ‘무능력한’ 남성으로 양분화되어 설명된다. 이는 전업주부란 여성의 영역이라는 사회의 통념 하에, 여성이 하면 당연하지만 이를 남성이 하게 된다면 여성을 배려해주는 혹은 여성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의식있는’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일을 단순 노동으로 치부하고 이에 임하는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보다 낮다는 통념의 반영으로 남성이 전업주부를 한다는 것은 그를 ‘무능력한’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성 전업주부를 모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사회의 전업주부의 위치가 이러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통념상 전업주부의 정체성은 여성의 몫이며, 가정 경제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고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전업주부 정체성은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임시적인

성격을 띠며, 여성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사례 7 처럼,

전에 큰 일인 것처럼 전업주부 남성들이 나왔는데. 옛날부터 엄청나게 역할 규정한 것이. 남편이 집안일을 더 잘할 거 같아요. 애들 태어나기 전에 나만의 공간이 생긴 거 같아요. 크든 작든 결혼하고. 잘 꾸미고 싶은 생각이 있 어가지고. 남편이 와서 양말 아무데나 놓으면 짜증이 나서 진짜 많이 싸우고 잔소리 하면서 빨래는 어떻게 개야 돼 설거지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가르쳤거든요. 남편은 곧이 곧대로 지금도 해요. 나는 애 키우면서 다 깨진 거지. 남편은 분리수거의 달인이에요. 그런 거 보면 딱히 이거는 남성의 일이다 여성의 일이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거기의 달인이 되는 거야. 아이 감성 잃어내는 것도 남편이 더 잘 하는 거 같아요. <사례7>

가사노동이란 여성만의 영역이 아닌 숙련여부에 따라 남성들도 여성들 못지않게 혹은 여성들보다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여성이 노동 시장의 불안정으로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것처럼, 남성들도 ‘의식 있는’, ‘전문적인 주부’로서의 선택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시장노동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듯이 가정 내에서도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역할에 있어서 주부라는 것에 ‘여성’이라는 언설이 항상 따라붙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고 임시적이다, 면접 참여자들은 돌봄 종료 시기를 염두해 두면서 다시 시장노동으로 돌아갈 것 혹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들은 ‘전업주부’라는 정체성에 유동적이며, 하나의 직업이라고 범주화하려는 사회의 흐름과는 달리 인터뷰 결과 그들은 ‘직업’으로서 전업주부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는 양성평등을 주창하며 성별분업의 약화를 내세우면서, 유일하게 전업주부 영역에서는 성역할이 고착되는 것은 왜일까? 이는 1997년 IMF라는 위기 이후 퍼지게 된 신가족주의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IMF 이후 한국사회는

가정경제의 위기로 기혼 여성들도 시장노동에 참여하기를 권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현상 일어나자 가족주의를 주장하던 이들은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정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상을 조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에서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가정 내부에서는 더욱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는 가족주의의 부활이 현재까지, 교육, 돌봄의 문제와 결합하여 고착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의 전업주부가 안고 있는 통념을 깨고 전업주부는 성별화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며, 항상적이지도 않고 언제든지 가정과 사회의 영역을 양성이 넘나들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2) 주부!! 다양성을 꿈꾸다

주부란 여성에게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양성이 넘나들 수 있으며, ‘전업’주부로 항상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임시적인 위치임을 위에서 언급했다. 이와 함께 양성 어느 누구든 ‘주부’란 위치에 있을 때에도 어느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다양한 주부가 존재함을 확인해야 한다. 즉, 신자유주의, 신가족주의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업주부 모델이 우리 사회의 전업주부의 모습의 전부 아니며, 그 모델을 따라가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를 뚫출해서도 안 된다. 특히 교육 매니저로서의 전업 어머니역할에 주부의 역할이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사회문제로서의 교육제도에도 다수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사회의 전업주부가 모두 신가족제도에서 제시하는 전업주부 모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의 면접 참여자들처럼 자녀가 미취학 상태일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의 교육관과 바람직한 주부로서의 고민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자녀의 성장과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관을 가진 전업주부 주체성 특히 교육주체성이 흔들리는 지점에 다가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준비되어야 할까? 위의 면접 분석에서 도출되었듯이 주부들이 다양

한 관계망을 통하여 이런 현상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남녀의 인식이 좀 더 폭넓게 성장해 나갈 것을 꾀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족위주가 아닌 자신을 찾아가는 장이 마련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의 경우가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남편들 보면 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있는데 나는 너랑 있으면서 너무 힘들다. '어려운 여자'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너 때문에 되게 많이 변했다. 친구들 만나도 놀란다. 깜짝깜짝'.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진보적인 친구랑 같이 막 동해서 막 화내고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 자기도 깨달은 거지. 나뿐만 아니라 살아 나가면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아, 이게 아니다. 잘못됐다 이런 게 있었겠쎬. 그걸 보면서 재밌쎬. 밤에 싸우긴 싸워도 같이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걸 보면서 조금씩 재미는 있어요.<사례4>

사례 4처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경우도 언제든지 주부의 위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가지의 주부모델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관계망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관계망들을 통하여 사회와 가정이 좀 더 유기체적으로 관계 맺도록 '주부'의 위치에 있는 자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꼭 이제까지 모델로서 제시된 전문적이고, 가족중심, 특히 자녀중심적인 신가족주의의 전업주부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는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을 고착시키는 신가족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전업주부도 끝까지 혼자 애를 키우지는 않는다.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주부로 가족과 사회의 지지(?)를 통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그 이유를 대부분이 임신과 육아로 들고 있다. 이들은 돌봄 노동 속에서 끊임없이 돌봄 종료 시기를 가늠하며 전업주부의 탈출을 모색하기도 한다.

돌봄의 문제는 주부에게 있어 가정과 사회를 넘나들 때에 가장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저해요소로서 남아 있다. 모든 돌봄을 가족에게 그것도 특히 여성에게 떠맡기는 사회였기에 돌봄의 가치가 저하되기도 하고, ‘나의 아이만 소중하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닐까 반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본 연구의 면접 참여자들도 공공보육 서비스의 확대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전업주부를 고정화시키지 않고, 또한 중산층의 전업주부 모델처럼 획일화되지 않은 주부의 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례 3이 말하듯 돌봄으로 인해 억압되지 않고 건강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것이다.

‘나라에서 아이들을 봐준다고 하면 엄마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든 가고. 욕구발산도 되면서 직업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지만 직장여성이 아니더라도 엄마들이 억압되지 않고, 좀 더 건강해지는 거니까. <사례 3>

윤택림(1996)은 전업주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교육, 전문교육을 받으려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더라도 그것이 전업주부 자신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남들이 그것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성정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모성은 어머니와 아이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아동과 육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업주부가 여성이라는 것에 국한 시킨 주장이며, 돌봄의 주체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확대시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입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개개인이 다 하지 않아도... 어차피 유치원에 보내고... 전업주부 보면 애들을 기본적으로 혼자 끝까지 키우는 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본인이 힘에 겨워서... 살림이 너무 힘들어서 맡기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요즘 워낙 외동들이 많아서... 애들끼리 또래 관계나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유치원에 보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꺼면 그냥 유치원이고말고 단일로 하지 말고...에듀

케어반을 따로 두지 말고 전체로 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면 좋지 않을까... 개인당 얼마주고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반일 반이어서 애가 갔다와서 집에서만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니까... 엄마랑만 같이 있는거랑 또래들이랑 계속 같이 있는 거랑은 애가 말하는 게 틀리거든요... 또래들한테 나쁜 것도 배우지만 좋은 것도 배울수 있고... 사람 사는 게 관계인데 이런 관계로 터득하는 방법을 애들은 모른다는 거죠. 외동애들은... 그게 좀... 동네에 또래 친구가 많으면 상관없는데 우리처럼 동네에 또래 친구가 없는 데는... 그런게 많았으면 좋겠다... <사례5>

취업주부든 전업주부든 상관없이 ‘애를 혼자 키우지 않는다’는 사례 5의 말처럼, 돌봄은 이제 어느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전체의 영역임을 인지하고 가족 단위의 양육이 아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성에게만 맡겨진 돌봄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양육으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가 공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적극적이고 양질의 보육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취업주부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전업주부도 ‘전업’이 아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업주부에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연구를 통해 ‘주부’라는 개념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특히 중산층도 저소득층도 아닌 그 사이의 중간계층의 전업주부의 연구를 통하여 전업주부가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그로부터 탈출가능하고 일시적인 위치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대상도 여성에게 고정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고자 했다. 따라서 전업주부, 취업주부를 막론하고 주부=여성이라는 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다. 돌봄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사고와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의 뒷받침에 필요성도 제기 했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계층연구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연구들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미숙(1993), 「계급별 가족과 여성」, 『여성과 한국 사회』, 사회문화 연구소
- 김효정(2009), 「저소득층 기혼 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소규모 식당 노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문옥표(1992), 「도시 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 『도시 중간층의 생활과 문화』, 한국 정신문화원
- 박소진(2007), 「자녀교육과 모성」, 한국여성학 대회 추계대회 발표집(미간행)
- 박혜경(2008), 「신자유주의적 주부주체의 담론적 구성과 한국 중산층가족의 성격: 미디어 담론 분석 및 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윤택림(1996), 「생활 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 -고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이데올로기-」, 『한국 여성학』, 제12권 2호
- 윤택림(2001), 『한국의 모성연구』, 미래인력연구소
- 이경아(2009), 「모성과 자본주의 생산성의 경합에 관한 연구 : 한국 중산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이재경(2003), 『가족의 이름으로 - 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 조 형(1997), 「도시 중산층 전업 주부의 권력: 구조적 무권력화와 구성적 권력화」, 『한국 여성학』 제13권 2호, 한국 여성학회



● 토론1

**김효정**

● 여성학 석사



● 토론2

조주은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토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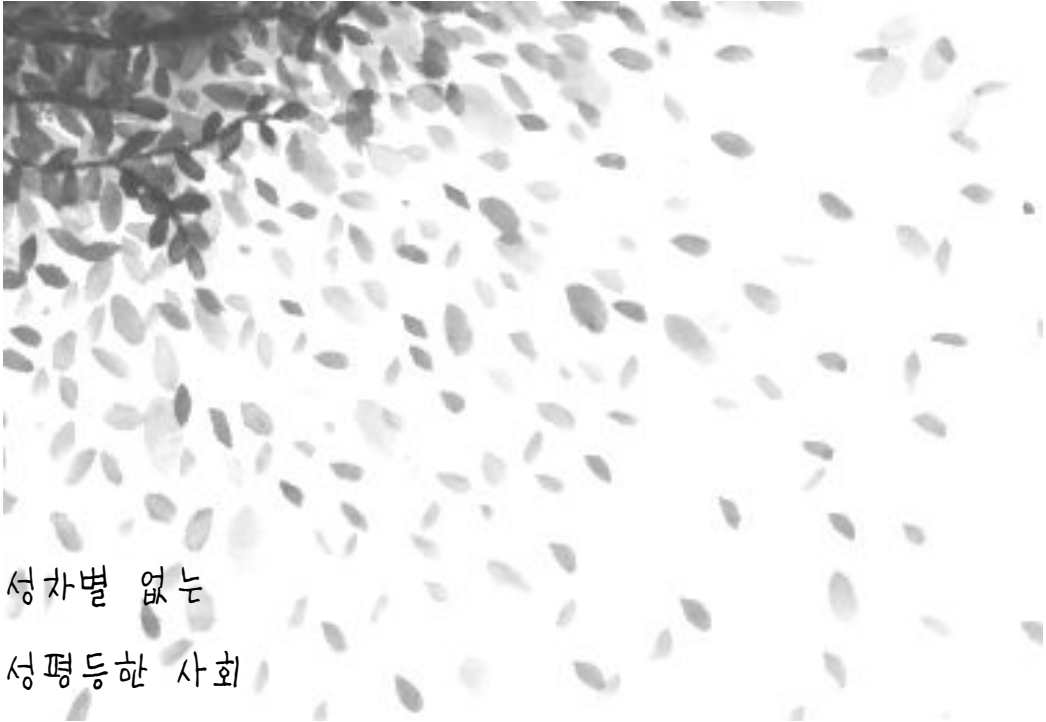
조영임

●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 전체토론

참가자



성차별 없는  
성평등한 사회  
다양한 차이가  
존중되는 세상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에서  
일상 속의 여성운동!

바로 당신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는?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http://www.womenlink.or.kr)  
1987년 생. 약칭 '민우회'.

성평등한 사회, 다양한 모습의 여성이 가능한 사회,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주의 운동단체.  
저로는 세밀하고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하게.

여성주의의 눈으로 일상과 제도 속의 차별과 소외를 드러내고  
이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생산의 연구소, 실천의 집합소.

**밥 2끼, 커피 3잔, 담배 4갑, 책 한권 값이면**

**성평등한 사회, 다양한 차이가 존중되는 세상을 한 톱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까울! >\_<**

## 민우회회원이 되면?

1. 회원소식지 '점쟁이는 여성'을 격월로 만나요.
2. 온라인소식지를 통해 민우회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3. 민우회 교육/강좌 참가비 10%할인, 발행되는 자료 30%할인혜택이 있어요.
4. 법인세법에 의한 공익성기 부금대상단체로서 회비/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요.
5. 합기찬 소모임 활동분 함께해요.
6. 다양한 문화가 있는 회원들의 독점공간 <모람세상>을 즐겁게 이용해요.
7. 차이가 공존하는 평등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가요.

회원팀 [Friend87@womenlink.or.kr](mailto:Friend87@womenlink.or.kr) 02.737.5763



## 한국여성민우회생협은?

'조화, 협동, 평등'가치를 지향하며 1989년 생활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생활제 이용으로 삶의 건강과 더불어 좋은 실리고 나아가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회원은 출자금 2만원만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전화,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덕분에 공급받거나 서울 방학동, 신정동,  
고양시 주엽동,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매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협매장이용문의 02.581.1675 [www.minwoocoop.co.kr](http://www.minwoocoop.co.kr)

※ 전취선... 회원가입이비용 없음/신청비 2천 원... 회원가입이비용 없음/신청비 2천 원... 회원가입이비용 없음/신청비 2천 원... 회원가입이비용 없음/신청비 2천 원... 회원가입이비용 없음/신청비 2천 원...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하는일: \_\_\_\_\_  
 주소: \_\_\_\_\_  
 회비약정액  월1만원  월2만원  연12만원  연20만원  평생회원  기타: \_\_\_\_\_ 원

**CMS자동이체 회비납부동의서**  
 민우회는 CMS자동이체를 통해 회비를 받습니다. CMS를 신청하시면 은행에 직접가는 번거로움이 없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적 자원도 절약합니다.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주민번호: \_\_\_\_\_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신가족주의사회  
전업주부를 말한다  
- 가족 토론회 자료집 -

2011년 11월  
한국여성민우회 제작·발행.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무 3층  
☎ 대표전화 02-737-5763  
e-mail : minwoo@womenlink.or.kr  
홈페이지 : www.womenlink.or.kr

2  
0  
1  
1  
년

신  
가  
족  
주  
의  
사  
회  
  
전  
업  
주  
부  
를  
말  
한  
다

전  
국  
인  
생  
문  
화  
회